

통(通) 성경 학교를 통한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代) 잇기

: 서산교회 300 가정 통(通) 성경 학교와 21 세기 리더 학교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장상철

드루대학교

메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Sang Chul Chang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CARRY ON A FAMILY LINE OF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E TONG BIBLE SCHOOL**

**: FOCUSING ON 300 FAMILIES OF SEOSAN CHURCH TONG BIBLE SCHOOL  
AND 21<sup>ST</sup> CENTURY LEADER SCHOOL**

Sang Chul Chang

Seosan church, Chungnam Seosan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present and propose a system to effectively pass on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as we face the prospect of declining Sunday Schools of up to 90% by 2030. In order to do so, 300 families who finished Tong Bible School along with members from the 21st Century Leader School were examined.

The methods emphasized in Tong Bible School and 21st Century Leader School reflect the ways in the Bible. When the Israelites entered the Promised Land, Moses stressed the importance of teaching children with God's laws, and likewise, Joshua also told the people to pass on their faith and teach their children that "God is love."

With this message at the core, this project conducted a study using three steps. The first was to theoretically examine what 'Tong Bible School with 300 households' and '21st Century Leader School' entails. The second was to explore how these programs were implemented in church. The third was to assess and review the outcome of the implementation.

The main theoretical framework is Dr. Byoungho Zoh's Tong Bible School which

unravels the whole Bible as one story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Tong Bible school starts from the age of 5 in each household and parents are to teach their children about a Kingdom of Priests, the five empires in the Bible, and the Kingdom of God. With this layout, a child is to grow up and attends 21st Century Leader School to be comprehensively educated thereon.

Shin Hyung-Seop accounted failures in family worship and proposed others to find a method that works for each family for their family worship.

Located in the countryside, Seosan Church has a 76-year history. In recent years, through Tong Bible School and Tong Bible Reading, church members of all ages have been working collectively to educate the next generation by building an education center before building a chapel for passing on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The desired outcome is that Seosan Church's 300 Household Tong Bible School and 21st Century Leadership School will become a stepping stone for family worship, with the ultimate aim to ensure that faith is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 국문 초록

### 통(通)성경학교를 통한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代) 잇기

: 서산교회 300 가정 통(通)성경학교와 21세기 리더 학교를 중심으로

장상철

서산교회, 충남 서산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앞에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代) 잇기를 통한 교회 부흥을 소망하며 본 논문은 ‘300 가정 통(通)성경학교’와 ‘21세기 리더 학교’를 효과적인 양육 체계로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00 가정 통(通)성경학교’와 ‘21세기 리더 학교’는 성경이 강조하는 방법을 그대로 교회와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 갈 만나세대를 향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당부했고, 모세의 뒤를 이은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 전제 하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代) 잇기를 강조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300 가정 통(通)성경학교’와 ‘21세기 리더 학교’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며, 둘째, ‘300 가정 통(通)성경학교’와 ‘21세기 리더 학교’는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셋째, ‘300 가정 통(通)성경학교’와 ‘21세기 리더 학교’를 실제로

교회에 적용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론적 배경인 조병호의 통통성경을 통한 성경통독과 통통성경학교는 성경을 예수 십자가 One Story로 파악한다. 가정에서 5살 아이가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부모에게서 이야기로 듣고, 교회에서 21세기 리더 학교를 통해 그 내용을 채운다. 동시에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부모 교육에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신형섭의 가정 예배 건축학은 가정 예배 실패 사례를 스스로 기록해 봄으로 각 가정에 맞는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세워가게 했다.

서산교회는 창립 76주년을 맞이하는 지방에 위치한 역사 깊은 교회다. 그러나 통통성경학교와 성경통독을 통해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대대 잇기에 한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보다 교육관을 먼저 건축하여 다음 세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서산교회의 ‘300 가정 통통성경학교’와 ‘21세기 리더 학교’가 한국 교회 믿음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대 잇기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목 차

표 목차 .....	x
그림 목차 .....	xi
감사의 글 .....	xiii
<b>I. 서론</b> .....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방법 .....	6
3. 연구 범위와 제한 .....	6
<b>II. 통(通) 성경과 통통성경학교</b> .....	8
1. 통통성경이란? .....	8
2. 성경통독 .....	16
3. 성경통독의 목적 .....	19
4. 성경통독과 통통성경학교 .....	20
<b>III. 통통 성경과 다음 세대 대 잇기</b> .....	25
1. 성경의 세대 구분 .....	25
1) 다음 세대, 다른 세대 .....	26
2) 다음 세대의 중요성 .....	28
2. 출애굽 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 .....	31
1) 야곱의 유언 .....	31

2) 요셉의 유언 .....	35
3. 만나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 .....	36
1) 만나세대 .....	36
2)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	40
3) 갈렙의 헤브론 기업 .....	42
4. 포로 시대의 신앙의 대 잇기 .....	45
1) 다니엘과 세 친구 .....	45
5. 포로 귀환 시대의 신앙의 대 잇기 .....	48
1) 에스라 .....	48
2) 느헤미야 .....	53
6. 복음 1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 .....	55
7. 복음 2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 .....	63
<b>IV. 통통성경과 가정 예배(학교)에 대한 이해 .....</b>	<b>65</b>
1. 다음 세대 대 잇기 기반으로 가정 예배 .....	65
2. 가정 예배에 대한 성경적 이해 .....	70
3. 교육의 장으로서 가정 예배의 회복 .....	72
1)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인 가정 예배 .....	74
2) 가정 예배 핵심 원리 .....	78
3) 사회 변동에 따른 가정의 신앙 교육 약화 .....	79
4. 통통성경 가정 예배의 내용 .....	81



5. 성경통독 통구구단(초급반) .....	88
<b>V. 통통성경과 서산교회 300 가정 학교 양육 체계의 실제</b> .....	94
1. 리더 스쿨 - 초등학교 5학년 대상 통(通)성경학교 .....	94
2. 교회학교 바이블 클래스 .....	114
3. 향존직 통통성경학교 .....	119
4. 평신도 통통성경학교 학교 리더 교육 .....	120
1) 가정교회, 가장 통통성경학교 .....	120
2) 토요 통통성경학교 .....	121
3) 교회학교 교사 통통성경학교 .....	124
5. 통통성경학교를 통한 회중의 반응 .....	125
1) 통통성경학교 이전과 이후의 서산교회 성도들 반응 .....	128
2) 통통성경학교 이후의 서산교회 가정 예배 참여도 .....	130
<b>VI. 결론</b> .....	133
<b>참고 문헌</b> .....	140
<b>부록</b> .....	144

## 표 목차

<표-1> 주제별 구약 배열(기존 편제) .....	12
<표-2> 주제별 신약 배열(기존 편제) .....	13
<표-3> 성경 66권 시작과 끝 이야기 .....	89
<표-4> 말씀 훈련 프로그램 - 주기도문(5-6학년) .....	115
<표-5> 말씀 훈련 프로그램 - 기도학교(3-4학교) .....	116
<표-6> 말씀 훈련 프로그램 - 성경탐험대(1-2학교) .....	117
<표-7>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 10분 원 스토리 .....	118
<표-8> 통성경 길라잡이 토요 새벽 직장인반 .....	122
<표-9> 서산교회 통성경학교 직분별 수강 현황 .....	126
<표-10> 서산교회 통성경학교 연령별 수강 현황 .....	127

## 그림(사진) 목차

<그림-1> 역사순 구약 배열 .....	13
<그림-2> 역사순 신약 배열 .....	15
<그림-3> 역대기 선물.....	49
<그림-4> 성경의 족보 .....	50
<그림-5>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고린도 방문 .....	62
<그림-6>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구분 .....	64
<그림-7> 가정 예배 캠프 .....	69
<그림-8> 통通 7트랙 .....	92
<그림-9> 21세기 리더 학교 입학원서 .....	97
<그림-10> 21세기 리더 학교 자기소개서 .....	98
<그림-11> 21세기 리더 학교 학부모 지원동기서.....	99
<그림-12> 21세기 리더 학교 독서논술스쿨 2013년 교육계획 안내.....	100
<그림-13> 21세기 리더 학교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 1 .....	102
<그림-14> 21세기 리더 학교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 2 .....	103
<그림-15> 21세기 리더 학교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 3 .....	104
<그림-16> 21세기 리더 학교 느헤미야 리더십 캠프 .....	106
<그림-17> 21세기 리더 학교 역사체험 캠프 .....	108

<그림-18> 21세기 리더 학교 2011 일본비전 트립 1 .....	110
<그림-19> 21세기 리더 학교 2011 일본비전 트립 2 .....	111
<그림-20> 21세기 리더 학교 2011 일본비전 트립 3 .....	113

## 감사의 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감히 용기를 낸 지난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서산교회에서 지나 온 시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서산교회에서 담임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대를 이어야 한국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겠다는 절박감에 앞 뒤 재지 않고 다음 세대를 강조 했었고, 감사하게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함에 시련도 있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목표만은 변치 않았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에 앞서 교육관을 먼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살부터 20살까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를 외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통성경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가족을 통해 다음 세대의 샘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성경 말씀을 몸소 실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귀한 강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의 열정과 배운 지식을 서산 교회에 300 가정 통통성경학교를 세워가는 일에 매진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갚아 가려 합니다.

아침, 저녁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저보다 더 간절함으로 부족한 사람의 논문을

지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몰라 하는 저에게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시고, 논리 전개에 힘을 실어주시고 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논문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철부지 목회자를 믿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서산에 세우기 위해 동역해 오신 서산교회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부하고 논문 쓰는 과정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 주신 동기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로 ‘힘 내시라’ 응원을 아끼지 않은 통독원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막내 사위 목회를 위해 간구하시다 하나님 곁으로 가신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목회도 버거울 텐데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아버지를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곁을 함께 지켜주며 위로와 기도로 용기를 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이 논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고 싶습니다. 미처 이름을 새기지 못한 모든 분들과도 감사와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Soli Deo Gloria!

## I.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필자가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이다. 주일 저녁이면 초등학교 3학년 막내가 주일 예배에서 담당 전도사로부터 들은 설교 본문과 내용을 아내에게 들려 주었다. 때로는 주일 예배 때 전도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도 말하였다. 그런데 주일 공과공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궁금해서 물었다. “주일에 공과공부는 하지 않아? 설교에는 은혜 받았다면서 공과 공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거니?” 아이는 “공과공부 시간에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 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계단에서 출석 부르고 공과제목 말하고 끝나요, 시간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떠들어 너무 시끄러워요.”

필자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쩌다 교육관을 들러 교회학교 모임을 접할 때가 있었다. 당시 교회학교는 교회 이름에 걸맞은 현대식 건물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학년별 단위로 교회학교가 운영되므로 한 학년만 해도 중형 교회 장년부만큼 모였다. 그러므로 대예배실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런대로 소화가 되어도, 그 많은 인원이 그것도 한 학년만 아니라, 몇 개 학년 교회학교가 흩어져서 공과공부를 진행해야 하므로 소그룹이 모일 공간이 절대 부족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심지어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 공과 공부를 하는 소그룹도 있을 정도였고, 공과 공부 시간도 절대 부족하였다. 장년부 시간에 맞추어 한 시간 안에 예배와 공과공부

모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과공부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도 주일 예배에서 들은 전도사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막내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전도사의 설교를 이해하고 이를 엄마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하듯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필자 가족이 선교사로 6년을 지내면서, 매일 저녁 어린이 그림 성경을 펼쳐 놓고 드렸던 가정 예배 덕분이었다.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선배 선교사와 교수는 모국어의 중요함을 모두 힘주어 강조하였다. 모국어란 말 그대로 엄마의 언어이다. 그들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선교사 자녀는 자칫하면 모국어를 하지 못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가정에서 모국어로 자녀들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었다. 이 원칙에 따라 아이들이 모국어를 접할 기회를 어린이 그림 성경을 선택하고,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하나의 스토리를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깨우치게 되었고, 성경 스토리도 기억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아이로 하여금 전도사의 설교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빠짐없이 엄마에게 전달하도록 이끌었다.

서산교회에서 담임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학교 교육을 강조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웠다. 5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라 교회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교육 공간과 관심은 많이 부족하였다. 어린이부 예배실 내에 청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름의 방들이 있었다. 공과공부 시간에 이 방들을 교회학교가 이용하긴 했지만 이런 구조는 갓 쓰고 양복 입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재정과 함께 미흡한 공간이라도 준비한 다음 해야 할 일은 장년들이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교회 창립 60주년 때, 교회 창립 100주년 비전을 선포하였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의 대대를 이어야만 교회 100주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代 잇기’는 구호나 건물을 잘 짓는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代를 잇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맞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곳은 가정이다. 가정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은 부모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인 자녀와 더불어 세워 가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 2008년에는 약 51.7%(보통 33.3 포함)가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2023년에는 21%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15년 만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반토막 그 이하로 추락하였다.<sup>1</sup> 예장총회 아동부와 청소년부 통계<sup>2</sup>에 따르면, 201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용천노회 장기발전 위원회는 2011년 교회학교 학생수 16,426명에서 2013년 14,923명으로 약 10% 가까이 감소한 걸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출산율 감소, 청년들의 결혼 기피, 결혼 부부의 출산 기피 등이 교세 감소의 한 요인임을 인정하였다. 계속해서 용천노회 장기발전 위원회<sup>3</sup>는 교회학교 위기 요인으로 ‘첫째, 가정의 신앙 교육 부재, 둘째, 부모들의 세속적 교육관, 셋째, 부모의 신앙 저하’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함께 사는 길은 먼저, 부모의 신앙 훈련과 신앙 교육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워 가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믿음의 대代 잇기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이

<sup>1</sup>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2023).

<sup>2</sup> 한국기독교공보, “신앙의 대잇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6. 2~11월 기획연재.

<sup>3</sup> Ibid.

르렀다. 이에 필자가 그 대안으로 서산교회에 제시한 것이 300가정 통통성경학교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기본 텍스트임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 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과 그리 친하지 않다. 성경이 어렵다고 한다. 성경 스토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니 읽어도 재미가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부모가 성경 스토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겠는가? 성경이 부담스러운데 가정 예배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교회에서 가정 예배지가 제공되어도 흥미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혹 예배 중 본문 외적인 질문을 자녀들이 한다면 난처해지니 아예 외면해 버리는 실정이다.

300가정 통통성경학교는 이런 성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녀들과 신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통성경학교는 조병호가 성경 전체를 7개의 큰 트랙으로 나누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며 그 효과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20년 넘게 청소년 캠프를 통해 그들과 씨름하면서 만들어진 교재로, 어린아이나, 어른 모두에게 쉽고 편하게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교재다.<sup>4</sup>

필자는 서산교회에서 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조병호의 통통성경학교를 손에 넣기 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21세기 리더학교를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아이들에게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리더학교가 해가 거듭될수록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교육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피택자 교육, 향촌직과 가장들을 위한 통통성경학교를 개최하였다. 통통성경학교를 공

---

<sup>4</sup>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4), 7.

부하는 중, 성경은 일 년에 열 번 읽어야 하는 책<sup>5</sup>이라는 조병호의 말에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여 자연스럽게 성경통독 운동도 시작되었다.

통통성경학교에서는 5살 어린 아이에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는 자라가면서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을 그려 넣기 시작하도록 한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나누던 세대가 최근 들어서는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무슨 무슨 세대라는 이름을 짓고 있다. X세대에 이어 Y세대가 등장하더니, Z 세대가 이어지고, 최근에는 MZ 세대가 등장했다. 세대간 주기도 짧아지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양성평등 등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입법이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발의되며, 우리 자녀들의 성 정체성뿐 아니라, 가치관까지도 혼란하게 한다. 이런 시기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읽고 쓰는 것도 교육하면 가능한 5살부터 사탄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마음에 그리기 시작하여 20살까지 하나님 나라 예수 One Story를 충분히 들려주는 것<sup>6</sup>이 조병호의 통통성경 패밀리 스쿨이다.

본고는 다음 세대에 믿음의 대대 잇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21세기 리더학교’와 ‘통통성경 가정 예배’를 제시하고자 한다. 300가정 통통성경학교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인구 절벽과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여 분열과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sup>5</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6), 8.

<sup>6</sup>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14.

##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이다. 문헌 연구는 성경을 7개의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성경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조병호의 통통성경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통통성경은 예수 십자가 One Story로 누구나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로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전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연령층이 다양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에 있어서 통통성경학교는 제격이라 할 것이다. 조병호의 통통성경을 토대로 관련 서적들과 학술 자료들을 두루 활용하였다. 연구의 또 한 축인 가정과 다음 세대는 가정과 주일학교, 가정 예배에 관련된 서적들을 중심으로 교단 연중 기획물과 논문, 학술 자료 등을 활용할 것이다.

사례 연구는 필자의 교회에서 실시한 21세기 리더학교와 체험 학습, 그리고 장년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1년 1독 새벽 기도회, 가족간, 가정교회별 일년 일독 성경 통독 녹음, 그리고 통통성경학교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 범위와 제한

본 연구에서는 통통성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음 세대별 신앙의 대대 잇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사회학적 세대와 조병호의 통통성경세대를 서로 비교해 볼 것이다. 조병호는 통통성경에서 출애굽 세대, 만나세대, 미스바세대, 재건세대, 그리고 복음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하였다. 그의 구분을 따라 세대별로 어떻게 신앙의 대대 잇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의 세대적 특징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代 잇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신형섭의 『가정 예배 건축학』<sup>7</sup>과 예배 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sup>8</sup> 이론을 따랐다. 신형섭은 가정예배 건축학에서 가정 예배 오답노트 다시 쓰기라는 부제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 먹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못한 실패의 원인은 무엇 인지를 다시 쓰게 함으로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로 잘 드러지도록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회 이전과 건축 과정에서 큰 시련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통성경에 말씀 뿌리를 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서산교회 리더들의 훈련 과정을 소개하려 한다.

---

<sup>7</sup>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sup>8</sup> 신형섭, 『예배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4).

## II. 통(通)성경과 통통성경학교

### 1. 통통성경이란?

성경은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살아 있는 하나님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통통이라고 레너드 스윗 교수는 말한다.<sup>9</sup> 스윗 교수는 계속해서 “통통이란 기도와 묵상의 형태로 말씀을 읽는 방식으로, 동서양이 만나고, 직감과 의도가 만나며, 구술과 도식의 만남이자, 소리가 이야기를 만나는 것”<sup>10</sup> 이라 했다. “성경의 75%는 네러티브이고 15%는 시이며 나머지 10%는 교훈이나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의 90%는 우리의 상상력을 그리고 나머지 10%는 지적 능력을 사로잡을 목적으로 쓰였다. 우리의 상상력과 지적 능력을 모두 사로잡는 것이 바로 통통이다”<sup>11</sup>라고 스윗 박사는 조병호의 책 『성경통독』에서 말한다.

건축가는 기초 공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다. 이유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함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 환난을 경험한다. 성경 기초가 튼튼하면 그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겨 끝내 승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

<sup>9</sup>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9), 13-19.

<sup>10</sup> Ibid., 14.

<sup>11</sup> Ibid.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하다. 이 세상 어떤 책도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지 않는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조병호의 통통성경은 성경 66권을 파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소리 내어 읽음으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책 『성경통독과 통통신학』에서 다음 세 가지를 통통으로 보자고 말한다.<sup>12</sup>

### 1) 첫째, 그는 시간, 공간, 인간을 통통으로 본다.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 대하 드라마이기에 이들을 통통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먼저 성경 속의 시간에는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과 끝이 모두 들어 있다. 성경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이 들어 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과,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의 시간, 총 2,000여 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보여줄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약 1,500여 곳의 지명이 들어 있다. 성경의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한 곳이고,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곳이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집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 10명의 정탐꾼이나 여로보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 당할 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삶의 방향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에 반드시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sup>12</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18-23.

2) 둘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통통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지 3개월 짜 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가게 한 것은 히브리 민족이라 불리는 그들에게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운 것은 모세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아브람과 요게벳 가정 이야기이며, 동시에 히브리 민족과 애굽 나라 이야기다.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통으로 보아야 한다.

3) 셋째,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은 제사장 나라가 여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중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임을 뜻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와 수직 관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 성경과 로마 제국은 아주 밀접하다 할 것이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대 제국 -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들어 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통성경이다.

#### 4) 통통성경 편제 구성

조병호의 통통성경은 기존의 주제별 혹은 장르별로 편집된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구약 전체를 3개의 트랙으로, 신약 전체를 3개의 트랙으로,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하나의 트랙으로, 총 7 트랙으로 정리하였다. 그가 성경을 역사 순서로 재배열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장르별 성경은 구약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훨씬 앞선 시대 사람인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장르별로 편제된 기존 성경을 읽는다면 느헤미야를 읽고 한참 후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다. 이 경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 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역사 순서에 따라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난 이후 느헤미야를 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역사를 경영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sup>13</sup>

<sup>13</sup> 조병호, 『성경통독 통구구단』 (서울: 통독원, 2023), 7.

<표-1> 주제별 구약 배열(기존 편제)<sup>14</sup>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창세기	여호수아	욥기	이사야	호세아
출애굽기	사사기	시편	예레미야	요엘
레위기	룻기	잠언	예레미야애가	아모스
민수기	사무엘상하	전도서	에스겔	오바댜
신명기	열왕기상하	아가	다니엘	요나
	역대상하			미가
	에스라			나훔
	느헤미야			하박국
	에스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위의 편제를 다시 역사순으로 구약을 배열해보자. B.C. 586년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함락된다. 그리고 B.C. 445년 느헤미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 온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따라서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느헤미야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구약성경 39권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읽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좋아질 뿐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길이 된다.

이제 구약성경을 역사순에 따라 세 개의 트랙으로 재배열하면서 묶여진 트랙의 큰 우산과 같은 분위기를 보자.

<sup>14</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18-24.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

⇒ 모세 5경(창, 출, 레, 민, 신)과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 왕정 500년(역사서와 예언서)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

⇒ 페르시아 7권(단, 학, 슴, 스, 에, 느, 말)

<그림-1> 역사순 구약 배열<sup>15</sup>



다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성경의 전통적 분류 방식이다.

<표-2> 주제별 신약 배열(기존 편제)<sup>16</sup>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sup>15</sup> 조병호, 『성경통독 통구구단』, 7.

<sup>16</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 25-28.

마가복음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야고보서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서	베드로전후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디도서	요한일이삼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유다서	

조병호는 신약성경도 구약성경처럼 역사 순서에 따라 3개의 트랙으로 구분하였다. A.D. 33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을 나누고,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준으로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을 구분하여 재배열하였다. 사도행전 30년은 바울의 전도 여행과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신약성경을 역사순에 따라 재배열한 세 개의 트랙과 분위기를 살펴보자.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set-up 분위기**

⇒ 4복음서(마, 막, 눅,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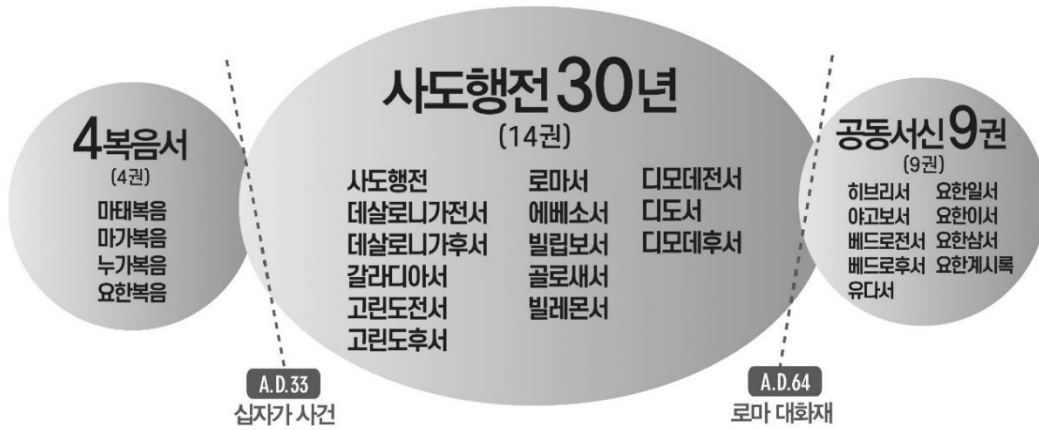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

⇒ 사도행전 30년(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 공동 서신 9권(히, 약, 벧전, 벧후, 유, 요일, 요이, 요삼, 계)

<그림-2> 역사순 신약 배열<sup>17</sup>



구약성경 3개 트랙과 신약성경 3개 트랙 사이 ‘중간사 400년’ 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

⇒ 중간사 400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완역한 후 “성경을 통통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며 성경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sup>18</sup>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일독을 목표로 하기보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sup>19</sup>라고 조언한 바 있다. 조병호 역시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집에 앉아 있을 때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것”<sup>20</sup>이라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sup>17</sup> 조병호, 『성경통독 통구구단』, 7.

<sup>18</sup> 기독교신문, “통독원, 패밀리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 시작,” 2016.3.17.

<sup>19</sup> Ibid.

<sup>20</sup> Ibid.

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가져서 아이가 고교 졸업 정도가 되면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학문적 연구를 할 정도의 깊이를 갖도록 이야기 속에 녹여 내기 위해 성경을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sup>21</sup>고 했다.

## 2. 성경통독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자국어인 독일어로 된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아마도 대한민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한국 개신교는 서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만주와 일본에서 쪽 복음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국내로 유입되어 한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선교사를 기다렸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이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의 발단이 되었고, 한국 초기 교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로 교회 부흥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선교 초기부터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통이었으나, 아쉬운 점은 서구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서구적 지식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분절식, 분석적, 해체적 방식을 통한 성경 연구가 비판적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한국에도 도입되면서 편향적 성경 읽기가 교회의 대세가 되었다. 이는 음식을 편식할 때 몸의 정상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편향적 성경 읽기로는 건강한 신앙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한국 교회는 시대 상황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제한시키는 폐단이 있었다. 이런 여러 과오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보는 성경통독이다.

---

<sup>21</sup> Ibid.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사건과 이야기 역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성경 내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전체로 읽되 66권 성경을 이야기가 진행되는 역사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현장에 들어가 그분의 손길을 느끼려면 성경을 기록된 역사 순서대로, 시대적 순서대로 생각하며 읽어야 성경이 주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22</sup>

“성경통독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어야 한다”<sup>23</sup>고 조병호는 말한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은 것은 텍스트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렇게 책 전체를 통(通)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을 때 직관(直觀, intuition)<sup>24</sup>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한 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매일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으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 또한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다 보면 눈과 마음이 가는 부분만 보게 되어 성경을 편식하게 되어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기 어렵게 된다.

성경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역사도 있다. 그리고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인물들의 일대기도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행적들에 대한 무수한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삶과 죽

<sup>22</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32-47.

<sup>23</sup> Ibid., 39.

<sup>24</sup> 직관(直觀)이란 감각 기관과 그 지각 작용을 통하여, 외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직접 얻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사유 작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식을 얻는 작용을 말한다.

음, 나눔과 실천, 전쟁과 승리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주제들이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통으로 보면 바다를 헤엄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조병호는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sup>25</sup>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장르별(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역사 흐름이 엇갈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어렵다. 장르별로 편집된 성경을 읽으면 그 자체로 주는 감동은 있을지 모르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셨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역사를 따라 읽어가면서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역사 속에서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그 당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조병호가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성경통독은 머리로 하는 공부라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부분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성경통독을 함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게 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전체를 보아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

<sup>25</sup> Ibid., 42-44.

<sup>26</sup> Ibid., 45-47.



보이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 3. 성경통독의 목적

성경을 통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얼마가지 않았다. 창세기 6장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며 한탄하신다.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홍수로 표현되었다.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시대 가운데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면 성경통독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sup>27</sup>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약 5백 년이 지난 후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다.<sup>30</sup>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

<sup>27</sup> Ibid., 60-61.

<sup>28</sup> Ibid., 61-62.

<sup>29</sup> 출 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sup>30</sup> 수 11:23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수 21:43-4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데, 이를 통통으로 읽지 않으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약속과 출애굽기 1장과 여호수아 21장은 별개의 사건이 되고 만다. 성경을 통통으로 읽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믿음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십계명은 1-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5-10계명은 사람과 관계를 규정해 주고 있다. 모든 계명 중 최고가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4. 성경통독과 통통성경학교

조병호는 “성경 66권 전체는 십자가를 향하는 하나의 이야기, 즉 십자가 원 스토리” 라고 한다.<sup>31</sup>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책인 성경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 혹은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양 도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 이기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인 성경은 5살 때부터 가르쳐야 가장 월등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은 5세가 되면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읽고 쓰는 것도 교육하면 가능해진다. 그리고 과학적 호기심이 발생하기 시

<sup>31</sup> 조병호, 『52 과 Family School 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1), 10.

작하며, 동화책 1권이나 어린이용 비디오 1편 정도는 집중해서 볼 수도 있다. 또한 친구와의 놀이가 가능하며 우정을 느낄 수 있고, 거짓말도 가능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깨닫고 반성도 할 수 있다. 때문에 5세가 가능한 시기인 것이다.<sup>32</sup> 그러므로 이때는 큰 그림을 배울 적절한 때이다. 이때 아이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는 자라가면서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들을 채워 나갈 수 있게 된다.

계속해서 조병호는 5세 아이에게 큰 그림 세 가지를 그리게 하라 한다. 그가 말하는 큰 그림 세 가지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경 속에 나타난 마음 보기를 먼저 하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훈련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 그림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먼저 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 나라의 일꾼 되기를 훈련한다. 셋째, 모든 민족을 그리게 한다. 성경 속의 민족 보기를 먼저 하고, 그 모든 민족 안에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도록 훈련한다.<sup>33</sup>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 큰 그림으로 신앙 교육을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다. 명령에 순종하여 지시할 땅인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아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2)라고 명하신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

---

<sup>32</sup> Ibid., 14.

<sup>33</sup> Ibid., 15.

라함은 갈등했을 것이다. 하란을 떠남으로써 과거의 혈연과 지연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미래의 혈육 기반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신앙적 갈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한다.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3일 길을 간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정도 걸리는 긴 거리였다. 3일 길을 가면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그의 지혜로운 일 처리를 볼 수 있다. 우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한다.<sup>34</sup> 이때 주저주저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번제에 사용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는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 결과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창 12:7), 이후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적 삶은 아들 이삭에게 신앙의 대를 이음으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세 가지 큰 그림으로 신앙 교육을 하였다.

예레미야도 5살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20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끝내 듣지 않음으로 앗수르 제국에 의해 사마리아 혼혈족이 되고 말았다. 그 후 남 유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될 수 있는 150여 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그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말았다.

---

<sup>34</sup> 창 22: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에 따라 남 유다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제 남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남유다를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그 내용을 20세의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지 못함에 대한 징계 70년, 그들을 다시 새롭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시려는 교육 70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로 900여 년간 그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계수하여 70년 동안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고 예루살렘 땅을 안식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70년이다. 이상 네 가지 의미를 지닌 바벨론 포로 70년은 모세 시대에 주셨던 옛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상기시켜 처벌받는 것이고, 이 옛 언약을 기반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한다.

예레미야가 언급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시작되는 언약이다.<sup>35</sup>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징검다리’로 들어 사용하셨다.<sup>36</sup> 한 민족 남 유다인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 되게 하였으나,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20살의 예레미야가 이해하고, 자신을 반대하며 심지어 죽이려는 위협을 가하는 동족들에게 전했다.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

<sup>35</sup>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sup>36</sup>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년』 (서울: 통독원, 2016), 183.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세 가지 큰 그림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세상 교육은 학교를 통해 만 5세부터 만 18세가 되기 전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모든 기초를 다 가르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10과목 이상씩을 배운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 소화하여 시험도 본다. 학교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학문의 기초가 되는 큰 그림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대학교육에서부터는 전공이라 하여 좁은 우물을 파게 한다.

성경 또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큰 그림으로 가르쳐주어야 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는 무엇보다 성경 이야기를 틀리지 않고 선을 넘지 않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sup>37</sup>

---

<sup>37</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116-117.

### Ⅲ. 통(通)성경과 다음 세대 대(代) 잇기

#### 1. 성경의 세대 구분

성경에서는 출애굽세대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 세대로 이해한다. 신약에서는 한 남자가 성장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아버지가 되는 기간을 한 세대로 본다. 그런가 하면 기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직계 가족,<sup>38</sup> 일정한 기간에 속한 사람들,<sup>39</sup> 또는 유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sup>40</sup>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sup>41</sup> 등을 세대라는 말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조병호는 성경의 세대를 크게 네 세대로 말한다.

먼저, 만나세대다. 만나세대는 출애굽세대와는 달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은 세대다. 두 번째는 미스바세대다. 미스바세대는 사무엘로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 사사 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형성된 세대다. 세 번째는 재건설세대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체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세운 세대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서 만드신 제자 세대다. 이들 세대의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 만나세대는 40년, 미스바세대는 20년,

---

<sup>38</sup> 창 25:13

<sup>39</sup> 사 53:8, 마 24:34

<sup>40</sup> 시 14:5, 마 12:39

<sup>41</sup> 롬 12:2, 눅 16:8

재건세대는 상당히 긴 70년이다.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제자세대는 3년이다.<sup>42</sup>

다음세대라고 했을 때 시간적 기준이 필요하다. 전통적 세대 주기에서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조부모 세대에서는 부모가 다음 세대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음 세대다. 다음세대라는 용어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본 논문에서 다음 세대로의 신앙 잇기란 부모에게는 자녀가, 조부모에겐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 모두가 다음 세대다.

### 1)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인간이 태어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때까지 걸리는 대략 30년을 한 세대로 한다. 세대 구분은 국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본다면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한 세대를 30년이 아니라 20년 혹은 최근에는 10년 단위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한 세대의 길이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0년이라 말할 수 있다. 인간 생의 주기로 한 세대를 3, 40년으로 나누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21세기 들어 세대는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얼마전까지 '신세대'라는 유행어가 돌았는데, 이들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로 'X세대'란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X세대'는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 X세대

<sup>42</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165.



는 개인주의와 차별화를 통한 개성을 주장하였다.

이러 등장한 Y세대는 1980년부터 1995년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 이들 세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참여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어떤 일에도 Yes라 대답하는 세대를 뜻하는 약자다. 이들 Y세대는 스마트 폰과 개인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사회관계 서비스(SNS)로 소통하며 ‘올로(Yolo)’ 즉 ‘워라벨(WorkLife Balance)’ 즉 등 다양하게 불린다.<sup>43</sup>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사는 Y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공유하는 ‘밀레니엄 세대’ 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투자하는 걸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올로(Yolo)’와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 ‘워라벨’ 등 많은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들에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나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 해서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어두운 면도 동시에 존재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Z세대는 Y세대 다음이라는 의미로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사물 인터넷(IoT) 시대를 살면서 각종 SNS를 사용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Z세대는 Y세대보다 더 인터넷과 IT에 친숙하며, 컴퓨터보다 스마트 폰에 더 익숙하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편이라 유튜브와도 아주 친하다.<sup>44</sup>

“우리가 그렇게 다른가요?”

김일국은 다음 세대를 이전과는 다른 세대라 정의한다.<sup>45</sup> 베이비붐 세대가

<sup>43</sup> 경기도 뉴스 포털, "나는 어디 세대? 하나의 시대에 살고 있는 3 세대 이야기," 2021.4.22.

<sup>44</sup> Ibid.

<sup>45</sup> 김일국,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 (서울: CLC, 2020), 25.

볼 때 X세대, X세대가 볼 때 Y세대가, Y세대가 볼 때 Z세대는 새로운 세대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발달된 전자 기기와 사회 관계망을 통해 타인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 이전세대와 비슷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들보다 더 어린 알파세대가 이미 등장했다.<sup>46</sup> 어른들의 눈에 Z세대나 알파세대나 같아 보이지만, 이들 다음 세대 안에서 서로 구분된다. 그리고 세대 갈등이 꼭 나이의 많고 적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젊은 세대인 다음 세대 간 서로 다름에서 세대 간 갈등도 일어난다. 김용섭은 그의 저서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2019)에서 2010년 이후 출생자를 알파세대라 정의했다. 왜 알파세대인가? 첫째는 세대를 지칭하는 알파벳이 모두 소진되어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알파세대요, 둘째는 기성세대를 능가할 특별한 미래 세대라는 기대감을 담아 알파세대라고 부른다.<sup>47</sup>

이들 알파세대는 Z세대보다 더 진화해 테크 중심적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을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누릴 세대다. 그렇더라도 이들도 기성세대의 자녀세대이다.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세대다. 그들의 삶의 정황과 특성을 따라 여러 세대로 불렀지만,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자녀로 비록 다른 점이 있더라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

## 2) 다음 세대의 중요성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에 비추어 과거

---

<sup>46</sup> Ibid., 31.

<sup>47</sup> 김용섭,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서울: 21세기 북스, 2019), 25.

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sup>48</sup> 역사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해석해야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사실이 아닌 살아 있는 과거다. 역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교훈을 주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세대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사사기는 말한다(삿 2:10).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다음 세대로의 신앙 잇기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모세는 만나세대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열심을 다해 가르쳤다.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명기 6:4-9)

<sup>48</sup>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2015), 34-39.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잇기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성공적 계승이 이루어졌으나,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는 앞선 세대의 잘못이다. 다음 세대로 신앙의 대 잇기에 실패한 것은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3단계 징계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다. 과거 7, 80년대 부모들은 소 팔고 논 팔아 자녀 학비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이라 여겼다. 공중과 방송에서 아버지들이 육아하는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는 것은 그만큼 이 세대가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다.

교회에서 교회학교에 가는 관심도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대예배실에서 사용하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이전에 쓰던 것은 교회학교에서 이어 받아 사용했었다.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별 놀이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이 많고, 부모들의 학교 성적 욕심이 주일에도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감비아는 국민들 90% 이상이 무슬림이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학교를 방문하여 성경 퀴즈를 내고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다. 교장은 선교사를 알고 그가 내는 퀴즈가 성경에서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도 제재하지 않았다. 무슬림 가정에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무슬림 교육을 받기에 성경 퀴즈 맞추고 학용품 준다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다.

아이가 5살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무릎에 앉혀 놓고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수학이나 영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성의껏 가르쳐 준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학이 아닌 성경 이야기를 부모가 있는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20살까지 부모에게서 성경을 배운 자녀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센 것은 제국이다. 그런데 바울은 연소하여 몸도 약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은 정확하게 맞았다. 네로 황제 이후로 기독교를 향한 불 같은 박해가 있었으나,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 2세대는 제국에 굴복하지 않았고, 비굴하게 타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손을 내밀어 로마의 국교로 삼았다.<sup>49</sup> 자녀가 5살이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내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기 때문이다.

## 2. 출애굽 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

### 1) 야곱의 유언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사건 세 가지만 찾아보라면, 첫째는 출애굽 사건이고, 두번째는 왕정 수립이고, 세 번째는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 포로들의 고국 귀환 사건

<sup>49</sup>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4), 7-18.

이다<sup>50</sup>.

출애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큰 사건이다. 출애굽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여호수아서까지 총 6권의 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출애굽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 출애굽을 말하려면 입애굽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다. 나일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나일 강물이 마르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애굽에 든 것이다. 애굽의 흉년은 인근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도 애굽에 든 흉년의 영향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왔다. 야곱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근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밝힌 시점은 7년간의 흉년 중에서 2년이 지난 때였다. 흉년이 앞으로 5년 더 계속될 것이기에 요셉은 형들에게 남은 5년의 흉년을 잘 넘기기 위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좋은 땅과 먹을 것을 줄 테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라며 수레까지 내어 주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에 애굽으로 가려고 가나안을 떠나려 준비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이 야곱은 두려웠다. 가나안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을 복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sup>50</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106.

충실했기 때문이다.<sup>51</sup>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이 이전에 '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sup>52</sup> 고대 근동에서 '단'은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종교적 목적이 더 많았다.<sup>53</sup>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창세기 46:3-4)

앞으로 야곱 가족은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 애굽에서 살기는 하지만 혈통과 신앙을 지켜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해 입애굽의 토대를 놓는다.<sup>54</sup>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벨엘에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던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애굽 땅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당대의 야곱에게는 애굽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성취될 것을 암시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 언약이 전혀 중단됨 없이 야곱을 통해 지속될 것이며, 궁극

<sup>51</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60.

<sup>52</sup> 창 46:1

<sup>53</sup> 강병도, 『카리스종합주석 6』 (서울: 기독지혜사, 2003), 556.

<sup>54</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60.

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한 것이다. 큰 민족은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제사장적 성격을 지닌 나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우주적인 것이다.<sup>55</sup>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만에 죽는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해줄 것을 맹세하게 했다. 요셉이 임종 직전의 야곱을 방문한 자리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되어 원래 12명이던 야곱의 아들이 14명이 된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요셉 대신 얻은 아들이므로 결국 야곱의 아들은 열세 명이 된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운 후, 가나안 진군을 위한 조직을 정비할 때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다. 어떻게 열세 명의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다.<sup>56</sup> 레위는 야곱의 유언과 그 이후 그들이 받은 사명으로 다른 지파와 달리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았다.<sup>57</sup>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애굽의 국장(國葬)으로 치른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급으로 치르면서, 형제들과 애굽의 만조백관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장례를 치르러 간 것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애

<sup>55</sup> 강병도, 『카리스종합주석 6』, 556-557.

<sup>56</sup> 창 49:7 “그 노여움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sup>57</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61.



굽에 영원히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즉 이는 출애굽의 예행연습이었다.<sup>58</sup> 요셉이 야곱의 유언을 잘 이해하여 충실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다.

## 2) 요셉의 유언

임종의 맞이한 요셉은 후손들에게 출애굽 할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명세시켰다.<sup>59</sup> 요셉도 야곱처럼 자신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장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셉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그의 유골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표가 되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왔을 때,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자신들이 목축하는 자임을 알리고 고센 지역에 살게 해 줄 것을 청하라고 했다. 이는 애굽에서 민족을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살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할 것이기에 민족이 섞이면 안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을 데려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선

---

<sup>58</sup> 조병호, 『성경통독』, 68.

<sup>59</sup> 창 50:24-25

포했다.<sup>60</sup> 출애굽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취하였고, 이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함으로 요셉의 유언이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다. 요셉은 죽은 후에도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 3. 만나세대의 신앙 대 잇기

#### 1) 만나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두 가지 중대한 일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유월절을 기반으로 첫째, 제사장 나라 언약 체결과 둘째, 성막 제작 봉헌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확실한 정체성을 세웠다. 이때의 성막 봉헌식은 다윗 때까지 그대로 옮겨진다.

출애굽세대는 첫 번 유월절의 당사자요,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작, 봉헌하나, 이들의 공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종료된다.

하나님이 보여 주신 청사진대로 성막을 세운 출애굽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진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인구 조사를 통해 성막에서 섬겨야 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두 지파 인구를 조사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두 지파를 배치하고 행진 순서까지 정하였다.

인구 조사가 끝난 후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가나안을

---

<sup>60</sup> 창 50:21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신과 원망으로 일관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 출애굽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정점을 찍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된  
 사람이라(민수기 13:1-3)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다. 사실 가나안 땅 정탐은 출애굽세대들이 먼저 제안하였다.<sup>61</sup>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은 먼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모세에게 역 제안을 한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sup>61</sup> 신 1:20~23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매.”

모세는 이들 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정탐할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서 정탐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 좋은 지 나쁜지, 그 곳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와 적은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열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하였다. 열두 명의 정탐꾼들 모두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땅에 대한 보고는 이구동성으로 좋다 했다. 문제는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너무 강하고, 거인인 아낙 자손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며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였다.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열두 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열 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였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당사자들임에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들이 내 놓은 대안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500여 년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실행했던 세 가지 - 유월절,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언약 체결, 성막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나,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며 이스라엘 백성

들을 위해 중보한다. 하나님은 일단 용서하셨지만, 대신 가나안 정복 계획을 40년 동안 연기하실 것을 밝히셨다.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결정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과 20세 미만으로 나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믿음의 한 걸음으로 좁혀질 때까지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은 지금 불신한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겠고, 이방인의 노예가 될 것이라 염려했던 그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품으신 것이다.<sup>62</sup>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와 함께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유아들과 청소년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교육하여 그들 부모와는 다른 월등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운다.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모세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 해서 ‘만나세대’라 부른다.

20세 이상 출애굽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자연사(여호수아, 갈렙 제외)하였고, 20세 이하 출애굽세대 자녀의 가나안 입성과 함께 갈렙에게 가나안에서 그가 원하는 땅을 선택할 것을 결정하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기대는 만나세대다. 모세는 만나세대를 근간으로 광야학교를 운영하였고, 40년 후 이들 만나세대는 월등한 두각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출 19:5-6), 그들에게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다(출 31:18).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게 하시고(출 25:16, 40:20), 그 언약궤

<sup>62</sup> 조병호, 『성경통독』, 114-118.

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배운 만나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 아닌 마음에 새기라(신 6:6)고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모세오경)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신 6:7)고 말씀하셨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7)

교육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끈다. 만나세대가 모세를 통해 그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 만나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모세를 통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40년 만에 자신들의 마음에 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 아닌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결국 만나세대는 부모 세대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모세에게 배운 율법을 가르칠 실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모세를 통해 만나세대들에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라고 전하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해 배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만나세대’가 증명해준 것이다.

## 2)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회복을 위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다. 모세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고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략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다섯 권의 율법책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위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전쟁 선발대로 세운다. 이들은 모세로부터 기업을 약속 받을 때,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러 갈 때에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에게 청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어느 누가 생명이 걸린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서려 하겠는가?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교육받은 만나세대들은 자신의 안전은 뒤로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렇게 이들 만나세대들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더해 주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 만나세대들은 만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섭취했던 것이다.<sup>63</sup> 40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지만 이번에는 40년 전과 달랐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막아 마른 땅을 보여 주셨지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

<sup>63</sup> Ibid., 136-137.

멘 제사장들이 앞장 서고 그 뒤를 만나세대들이 뒤따랐다.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다.<sup>64</sup>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홍해가 갈라질 때처럼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춰서 벽을 이루고, 뒤따르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 3) 갈렙의 헤브론 기업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지닌 재화는 그들이 지닌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큼 넉넉했던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늘 한정된 재화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이며 살아왔다.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와 같은 인간의 삶을 두고 홉스는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 했다. 자연상태의 극복을 위해 인간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일부의 인간들은 생산력을 고도로 발달시킴으로써 인간들이 지닌 무한한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욕망과 이기성(egoism)을 극복하고 이타성(altruism)을 함양시키는 도덕적 성숙의 과정을 통해 자연상태를 극복하려는 시도 또한 있어 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정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자연상태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시도 역시 존재하였다.<sup>65</sup>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수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통한 영적인 교회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여

<sup>64</sup> 수 3:15-16

<sup>65</sup> 울산제일일보, “분배적 정의에 대한 고찰,” 2012.3.22.



가지 않았다. 매일 기도 에 힘쓰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불평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먹는 문제였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수적으로 크게 부흥을 이루었지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가난했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은 사도들에게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구제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했다. 한 끼 음식 나누는 사소한 문제로 성령 충만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도들은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집사를 택하여 구제하는 일을 맡김으로 지혜롭게 이를 해결하였다.

여호수아는 만나세대들의 수고로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제 각 지파가 거주할 땅을 정해야 한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는 만나세대 전부가 하나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얻은 것을 두고 분배를 시작할 때 무너질 위험이 매우 크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였다.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각 지파에 해당하는 땅을 정하고 분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제비를 뽑아 결정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대로 순종한다는 것이다. 제비를 뽑는 제도는 사람들의 공로를 따라 갚아주는 논공 행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은총의 원리다. 제비는 인간의 손으로 뽑지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최후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sup>66</sup>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 받기 위해 제비 뽑는 일을 시작하려는 무렵

<sup>66</sup> 강병도, 『카리스종합주석 22』, 111.

갈렘도 유다 자손과 함께 참여하였다. 갈렘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모세로부터 약속 받은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밭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여호수아 14:6-9)

이제 갈렘은 모세로부터 받은 네 밭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곳이라  
 는 약속을 내세워 제비 뽑지 않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다. 갈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특권 의식이 아니다.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자손들을 한시라도 빨리 격멸하여 그곳을 정복함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일조하려는 희생 정신의 소산이다.

갈렘에 요구한 헤브론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도 여전히 완전하게 정복하  
 지 못한 성읍이었다. 이 성읍은 45년 전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장대함을 보고 크게  
 놀랐던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 모세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하며 아름다운 곳을 분깃으로 받았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영토는 사사 시대 중심지였던 실로를 주축으로 한 종교와 정치 문화의 중심 무대가 된다. 이들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것으로, 다른 지파의 시기와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작 불평은 다른 지파가 아닌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였다.<sup>67</sup>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그 땅을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철 병거를 갖고 있어 정복하기에 용이하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누구나 좋은 땅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정복한 땅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지파에 비해 넓고도 비옥한 땅을 분배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요셉 지파가 있는데,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정복 일등공신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복하기에 용이하고 비옥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을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함으로써 땅 분배에 대한 부담을 확 들어주었다.

갈렙의 이 선택은 가나안 땅 분배의 기본 정신이 되어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sup>68</sup>

#### 4. 포로 시대의 신앙의 대 잇기

##### 1) 다니엘과 세 친구

---

<sup>67</sup> 수 17:14

<sup>68</sup> 조병호, 『성경통독』, 145-147.

520년 상아시아 맹주로 군림했던 앗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의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가 하루 아침에 모두 죽자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동력이 사라졌다. 앗수르의 보호 하에 있으면서도 앗수르를 물리치고 호시탐탐 근동의 패권을 쥐어 보려던 바벨론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차고 앉았다.<sup>69</sup>

바벨론은 앗수르 제국의 실패한 혼혈주의 정책 대신 그들이 점령한 식민지에서 인재들을 데려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영원을 꿈꾸었다.<sup>70</sup>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정책에 따라 각국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머리 좋은 청소년들을 선발하였다.<sup>71</sup>

첫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둘째, 모든 지혜를 통달할 수 있는 자.

셋째, 지식에 통달한 자.

넷째, 학문에 익숙한 자.

다섯째, 왕궁에 설 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

바벨론 제국은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유대인 청소년 4명을 선발하였다. 대체로 다른 나라들에서 끌려온 청소년들에게는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둔 반면, 유대인 청소년들은 바벨론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머리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들지 않았다.<sup>72</sup>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통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통치 철학을

<sup>69</sup>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18), 128-129.

<sup>70</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20), 81-85.

<sup>71</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325.

<sup>72</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83.

최고의 대우로 교육시킨다 해도 제국이 기대하는 이데올로기적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만 5세부터 가정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학교를 시작하였다.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이미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충분히 공부했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준비한 교육 커리큘럼을 레위기 11장의 '제사장 나라 음식법'으로 도전한 것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다니엘 1:8~9)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한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다.<sup>73</sup>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레위기 11:2)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때가 기원 전 606년경이었으니 그의 나이는 15세 전후였다. 당시 바벨론 왕실 음식은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다. 레위기 11장의 제사장 나라 음식법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했다.

<sup>73</sup> 조병호, 『통솔 페르시아 7권 1』 (서울: 통독원, 2020), 329.

도널드 캠벨은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었고, 또한 문화적 압력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성숙함과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는 다니엘이 성경 학도라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일상생활 속의 문제에 적용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명백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sup>74</sup>

다니엘이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다. 성경은 다니엘의 부모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에게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헌신된 경건한 부모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았기에 바벨론 제국 왕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힘든 포로 생활에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문과 행정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 5. 포로 귀환 시대의 신앙의 대 잇기

### 1) 에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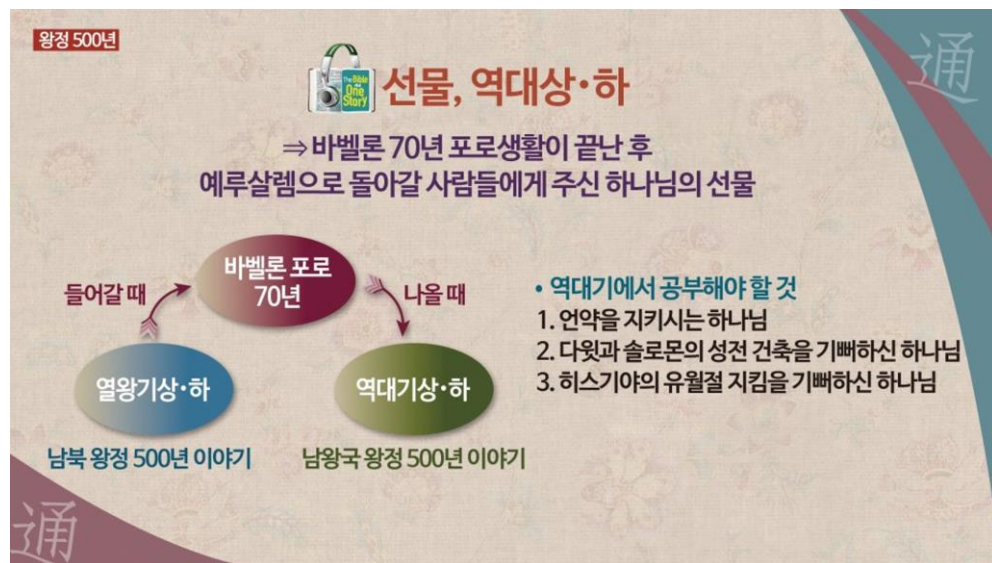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열왕기서를 주셨다. 열왕기서에는 남유다 백성들과 그들 조상들의 왕정 5백 년 동안 잘한 것도 기록되었고, 잘못된 역사에 대한 기록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열왕기서 기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로 설명한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찾고 있다. 열왕기서는 남, 북 왕들의 치적이 일정한 도식으로 반복해서

<sup>74</sup> 케네스 O.갱글, 『Main Idea로 푸는 다니엘』 (서울: 디모데, 2010), 33.

기술되고 있는데, 남유다 요시아 왕이 가장 칭찬받는 선한 왕인 반면, 므낫세는 남유다의 멸망 요인을 제공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평가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는가였다. 요시아는 여호와와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잘 지켰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열왕기서를 준 이유가 분명하다. 남유다와 그들 조상들이 무얼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바벨론에서 갖게 한 것이다.

### <그림-3> 역대기 선물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역대기상, 하를 선물로 주셨다.<sup>75</sup> 바벨론 포로를 떠난 남유다 백성에게 열왕기서를 선물로 주신 것은 바벨론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sup>75</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302.

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로 거듭났다. 포로가 끝나고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려는 재건세대에게 하나님은 역대기를 주시면서 다윗 시대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 하셨다. 역대기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 족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다윗 가문의 계보다(대상 1:1-3:24). 역대기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에 이른다. 둘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계보다(대상 4:1-8:40).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부터 귀환 전 각 지파별로 기록되어 있다. 성전 제사 회복이라는 귀환 세대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레위 지파와 남유다를 형성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족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 셋째,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다(대상 9:1-44). 에스라는 역대기 족보 안에 구약 전 역사를 압축하고 있다. 방대한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반면 어떤 부분은 강조한다. 하지만 에스라는 역대기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중단 없는 구속 사역을 보여준다.

<그림-4> 성경의 족보<sup>76</sup>



<sup>76</sup> Ibid., 37.



역대기 족보의 저자인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국한 후 약 80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재위 7년 5개월에 2차 귀환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한 지 약 60여 년이 흐른 후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는 기원전 458년으로 1차 귀환자들 중 대부분은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에 함께 한 만나세대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처럼,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다.

페르시아 왕의 자문이라는 탄탄한 지위마저 내려 놓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귀환한 이유는 하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에스라는 자신의 귀국 이유를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스 7:10)라고 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먼저 준행하며, 그런 후에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페르시아에서의 탄탄한 지위마저 내려 놓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다.<sup>77</sup>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는 먼저 귀환한 세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

<sup>77</sup> 유도순, 『이것이 구속사 설교이다』 (서울: 머릿돌, 2017), 252-260.

다. 가나안에 들어간 만나세대가 가나안 족속들과 성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사마리아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족을 만들기 위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도 고센 지역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경계하셨다.

에스라 역시 그들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에 민감했었다.<sup>78</sup>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스 9:2)라고 기록하며 또다시 세상과 섞이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속옷과 겹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회개하였다. 에스라의 개혁 운동은 철저하고 엄정하고 단호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혼혈족이 된 마당에 더 이상 남아 있는 유대인들마저 이방인과 섞여 혼혈인이 되지 말아야 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조사하기를 마치고 그 명단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이방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내 보내기로 맹세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엘람 자손 스가냐가 아내로 맞은 이방 여자를 내쫓을 것과 율법대로 살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에스라가 추진하는 개혁을 힘써 도울 것을 약속함으로써 에스라의 개혁은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sup>79</sup>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한다. 에스라가 자치 지도부 성격인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sup>78</sup> 이애실, 『어, 성경이 읽히네』 (서울: 성경방, 2020), 170-172.

<sup>79</sup> 조병호, 『통솔 페르시아 7권 2』 (서울: 통독원, 2020), 20-21.

왕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 하에 70명에서 71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하였다.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 하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도 '준 사법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았다. 그러다 A.D 70년 맛사다 항쟁을 끝으로 산헤드린 공회도 끝이 난다.<sup>80</sup>

## 2)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제1차 귀환 때에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재건하였고, 제2차 때에는 에스라의 인도로 산헤드린 공회가 설립되었다.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제3차 귀환이 있게 된다. 귀환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을 지키며 성경 통독 사경회를 이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대외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바벨론 포로민의 자녀로 태어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애가를 귀환 공동체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꾸는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 소개하였다(렘 1:1). 똑같은 방식으로 느헤미야도 책 서두에 자신의 아버지가 하가랴임을 밝혔다(느 1:1).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던 하가랴의 아들로 태어나 바벨론에서 아

---

<sup>80</sup> Ibid., 191-192.

버지를 통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 배우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제사장 나라에 관해 교육을 받았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도 자녀가 어릴수록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하다.<sup>81</sup>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수산 궁에 살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이미 두 번의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의 때처럼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 성벽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흠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느헤미야 1:8-9)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느헤미야가 1,000년 전에 기록된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어려서

---

<sup>81</sup> Ibid., 223-224.

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이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3단계 처벌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셨다. 3단계 처벌이란, 1단계 흉년, 2단계 이방인에 의한 수탈을 비롯해 전염병, 칼에 의한 처벌,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처벌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 된 곳 거기서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루어주시길 기도한다.<sup>82</sup>

느헤미야는 모세의 기도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내 살고 있는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70년을 보내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말했고, 느헤미야는 이를 기억하였다.<sup>83</sup>

## 6. 복음 1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써 보낸 글이다. 누가는 예수 제자들 이야기를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여 죄수 바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예수가 승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사람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예수님을 팔기로 거래를 한 것이며, 대제사장 세력들이 중심이 된 산헤드린 공회가 유다의 제안을 수

<sup>82</sup> 박영호, 조병호, 『기적을 만나는 기도』 (서울: 통독원, 2022), 169-180.

<sup>83</sup> 렘 29:5~7, 24:1~5

용하여 불법 재판을 언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를 끌어 들여 로마 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삼일 후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경비병들의 보고와 함께 40여 일 후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40여일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비로소 제자들의 시대가 열린다.

예수 승천과 성령 강림은 이제부터 모든 것은 사도들이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시던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제자들은 수동적으로 함께할 뿐이었다.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 주도하셨다.

그런데 예수 승천을 본 제자들이 그 순간부터 사도가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된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 같이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다. 그런 그들이 여러 나라의 말들을 한다.<sup>84</sup> 더 놀라운 것은 각기 세계 각국의 말을 하지만 그 뜻이 모두 일치하였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하였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

<sup>84</sup> 행 2:6-7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사도행전 2:38-40)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재판 받으시기 위해 잡혀 가셨을 때 신분이 드러  
날까 몰래 숨어 들었다가, 여종에게 신분이 탄로나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  
주까지 했던 베드로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증인임을 당당하게 고백한다. 베드로의 말에 성 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실천하였다. 이를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이런 모습을 지  
켜보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 그들을 비상시국으로 몰고  
가는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는 50일 전  
유월절 이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발각 뒤집어지게 하는 일로 발전한다. 1차 산헤  
드린 공회를 주도했던 산헤드린 공회 주도 세력들은 지금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지하고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서 제2차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다.

약 두 달 전 제1차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을 때, 예수의 결국을 보기 위해  
재판장을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온 베드로가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은 그들이 재판  
받는 입장이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그때와 너무 달랐다.

다른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 없음이라(사도행전 4:12)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행 4:12)라고 선언하는 이 모습은 예수께서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기대하고 바라셨던 바로 그 모습이였다. 베드로를 3년이나 동행하며 훈련시킨 결과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되어 3천 명, 5천 명을 모았다는 사실도 대단하지만,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모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됨을 선언하는 모습에 그 자리에 모인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정말 놀랐다. 당장 죽이고 싶었겠지만, 병 나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 증인 된 것과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진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한 후 석방하였다.

하지만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사도들에게 산헤드린 공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공식적인 모임도 가졌으며,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sup>85</sup> 이를 본 산헤드린 공회 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시기하여 다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였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시기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잡아 가

---

<sup>85</sup> 조병호,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서울: 통독원 2018), 80.



두었다.<sup>86</sup> 예수님께서 3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전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제3차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었다. 제3차 산헤드린 공회<sup>87</sup>에는 원로들까지 모였다. 그 대단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당당하게 예수의 십자가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역할도 대제사장의 직임도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려 하였다. 위기의 순간 노련한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은 채찍형을 받고 풀려나게 된다.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점점 발전해 갔다. 그런데 이를 그냥 두고 볼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 채 흔들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스테반을 고소할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제4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다.

이때부터 산헤드린 공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본격화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

<sup>86</sup>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족, 친척, 모든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을 전적으로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sup>87</sup> 시내 산 언약 체결 직후,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중에 모세와 함께 유월절에 특별히 수고한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신다. 출 24:9-11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이후 에스라가 제사장 나라의 실질적인 구성을 이끌 수 있는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70명에서 71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것이 ‘산헤드린 공회’이다. 페르시아 때에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남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 나라의 투트랙으로서 ‘성전과 산헤드린 공회’ 형식을 띄고 유지하고 있었다.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은 바리새파들이 약 56~60명, 사두개파들이 12~15명 정도다(조병호, 통성경 텍처러 강의).

제4차 산헤드린 공회의 연장선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뿌리를 뽑아 버리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산헤드린 공회 세력과는 이별하였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의 변화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줄지에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sup>88</sup>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한다. 안디옥으로 파송 받은 바나바는 갈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동역하였다.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은 여전하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여, 1년 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친 바울 선교가 시작된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방해꾼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사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켜 그렇게 튼튼했던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문제로 야고보 의장이 인도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된다. 바나바와 바울의 2년 동안 소아시아 전도 여행 보고와 함께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도 함께 보고한다.

베드로 발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기독교 유대인조차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요해 괴롭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sup>89</sup>

구원 받기에 예수 십자가면 충분한데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

<sup>88</sup> 조병호,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107-125.

<sup>89</sup> Ibid., 131.

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복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하면서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으로 함께 파송하기로 결의한다. 이와 함께 바울을 바나바급으로 격상시켜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sup>90</sup> 예루살렘 공회 이 결정은 이후 바울이 독자적인 선교팀을 꾸려 두 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 팀장으로 전도팀을 이끌게 된다.

바나바와 헤어져 독자적인 전도팀을 구성한 바울은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어서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안디옥 같은 선교 센터를 로마에 세워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인식하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sup>91</sup>

이렇게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세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한 헌금을 전달하고, 그가 그동안 방문하였던 소아시아 교회들과 동유럽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sup>92</sup>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부탁으로 서원을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네 사람의 결례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는데, 이를 오해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을 뿐 아니라, 5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된다.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 배신자 바울은 꼭

---

<sup>90</sup> 행 15:23-29

<sup>91</sup> 조병호,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150-151.

<sup>92</sup> Ibid., 153.

제거해야만 하는 원수였는데, 바울이 자원하여 천부장에게 공회를 열어 달라고 했으니 이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재판은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놀이터와 같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재판을 통해 마지막으로 공회원들을 설득하려 시도했으나, 분위기가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재판장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 자중지란이 일어나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40명의 사도 바울 암살단이 조직되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천부장에게 찾아와 제 6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은 로마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미결수로 2년간을 지낸다.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을 느낀 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된다.

<그림-5>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고린도 방문



## 7. 복음 2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

로마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않았던 큰 사건이 일어난다. A.D 64년, 로마 시내 1/3을 다 태워버린 로마 대화재 사건이다. 화재 진압을 위해 네로는 최선을 다 했지만, 여론은 네로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자신이 의심을 받게 되자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의 누명을 뒤집어 씌었다. 그렇게 해서 방화범을 잡아 들이겠다고 초기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이 체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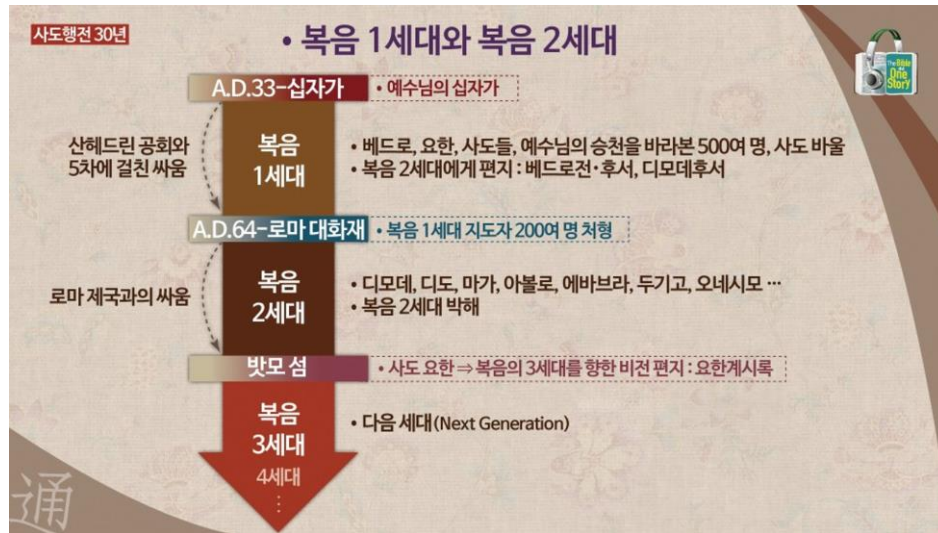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암살단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천부장은 제국의 군사 보병 200 명과 기병 70명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냈다.

그런 로마 제국이 이제는 앞장서서 250여 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죽음을 직감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복음 1 세대들이 산헤드린 공회 세력과 맞서 믿음의 대를 이어준 것처럼, 디모데를 비롯하여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같은 잘 훈련된 복음 2 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였다.

조병호는 복음 1 세대와 복음 2 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를 다음의 하나의 그림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sup>93</sup>

<sup>93</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568.

&lt;그림-6&gt;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구분



#### IV. 통(通)성경과 가정 예배(학교)에 대한 이해

##### 1. 다음 세대 代 잇기 기반으로 가정 예배

온도새 - 온 가족이 토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드리기,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집회 등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의 대 잇기를 위해 몸부림을 친다. 하지만 드린 수고만큼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한다. 상당 기간 동안 전통적인 기도회를 해 왔었다. 그러다 코로나 19가 유행하기 시작한 그 해부터 금요 기도회를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처음 2, 3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였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오히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가정의 수가 늘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 저녁 9시에서 저녁 8시로 시간을 한 시간 앞 당겨서 모였다. 기도회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말씀 듣고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찬양과 기도를 병행한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기도회는 10시가 조금 넘어 마친다. 기도회를 마무리할 시점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매주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기도회가 코로나 초기보다 지금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 물론 참여하는 대부분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그 이하 자녀들이다.

한국IFCJ 가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5월에 ‘한국 기독교 가

정의 신앙과 자녀 신앙 및 신앙교육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sup>94</sup>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느끼고, 아버지가 가정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58%나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 훈련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는 26.7%에 불과했고, 훈련을 받았다 해도 이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응답자 91.9%가 가정예배를 포함하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대 잇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국 기독교 가정의 현실은 그 필요성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부흥하고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섬기는 서산교회에서 2017년 첫 번 가정 예배학교 세미나를 실시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신형섭 교수를 강사로 9가정 32명(자녀 포함)이 참석하였다. 7월 8일 토요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주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의와 나눔, 참석자들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5주간 강사의 강의와 실습, 그리고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마지막 시간은 가족 캠프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그간 배운 내용들을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 오전 수료식을 가졌다.

<sup>94</sup> 한국기독신문, “신앙적인 가정,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 2021.5.18.



그 다음 5 주간의 강의는 가정 예배 세우기 이론의 5 단계와 해당 자료들을 함께 나누었다.

#### 1) 가정 예배 세우기 1 단계 : 가정 예배 터 닦기<sup>95</sup>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회심을 경험하고, 그 바탕 위에 부모가 가정의 신앙 교사임을 인식해야 한다.

#### 2) 가정 예배 세우기 2 단계 : 가정 예배 기둥 세우기<sup>96</sup>

이 단계에서는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 신뢰와 사랑의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부모는 자녀가 말씀 안에서 변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정원사와 같아야 한다. 또한 부모의 삶이 자녀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어야 한다.

#### 3) 가정 예배 세우기 3 단계 : 가정 예배 벽돌 쌓기<sup>97</sup>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예배라면 그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으면 말씀과 기도의 벽돌로 부모와 자녀, 가족과 주님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 4) 가정 예배 세우기 4 단계 : 가정 예배 지붕 덮기<sup>98</sup>

기둥이 세워지고 벽돌로 서로 연결되었으면 지붕을 덮어 집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 가정 예배가 외부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

<sup>95</sup>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29-42.

<sup>96</sup> Ibid., 49-56.

<sup>97</sup> Ibid., 63-74.

<sup>98</sup> Ibid., 79-90.

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의 가정에 합당한 기독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5) 가정 예배 세우기 5단계 : 가정 예배 디자인 하기<sup>99</sup>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사건'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가정마다 가정 예배는 특색 있게 디자인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디자인함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집 가정 예배는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둘째, 우리집 가정 예배는 예배의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셋째, 우리집 가정 예배는 가족의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넷째, 우리집 가정 예배는 명시적, 암묵적, 영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다섯째, 우리집 가정 예배는 강력한 상징적 예배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다.

#### 6) 가정 예배 세우기 실천편

가정 예배 학교를 세워 정기적으로 교회 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과 수료자들과 함께 가정 예배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다.

---

<sup>99</sup> Ibid., 96-104.

<그림-7> 가정 예배 캠프



## 2. 가정 예배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인간에게 가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최초의 사회 환경으로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혈연집단인 동시에 기초적인 사회 집단이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에게 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한 인격체가 육체적 성장과 함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정적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창 1:22)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1:24)라고 하셨다. 이렇게 시작된 가정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가장 친근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기초적 단위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특히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마음과 한탄하시는 마음 등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다.<sup>100</sup> 창조 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인간들이 벌이는 죄악 된 행태로 인해 많이 상해 계신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창

<sup>100</sup> 조병호, 『52과 Family School 을 위한 통성경학교』, 117-118.

6:6) 하실 정도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홍수로 사람들을 처벌하신다. 지구를 뒤덮은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물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라 할 것이다. 사랑이 본성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론 인간이 범죄한 것이긴 하지만,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 가정이다. 기독교 가정은 믿음의 부모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으로 가득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모들이 몸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일선이어야 한다.

가정은 인간의 편리와 사회의 제도적 편리를 위해 단순히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 기관이다. 그리고 가정은 모든 사회 기관보다 가장 먼저 존재하였다. 심지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워지기 전에 이미 가정은 존재하였다. 제도적인 국가 기관도 가정이 세워진 후에 존재하였다. 따라서 가정은 가장 근본적이며 최초의 기관이다. 그리고 가정은 어느 기간, 혹은 어느 장소에 한정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은 존재하였으며, 국가나 심지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가정은 주님 오실 그 때까지 이 땅에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성경적 결혼관을 가장 잘 설명한 이는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이 비밀이 크도다” (엡 5:31) 라고 표현하였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5:21) 는 말에

서 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부부 또한 하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남편 역시 아내를 위해 희생과 섬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급감하고 이혼 및 비혼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아니 와해되어 가고 있다. 6-70년대 산업화는 가정에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핵가족화를 넘어 지금은 극단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상대주의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마저 도전 받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정과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되돌아 보아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교육의 장으로서 가정 예배의 회복

자녀 셋을 둔 가정을 심방한 적이 있다. 거실 한 켠에 보편대가 서 있길래, 첫째와 둘째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서 집에서 연습하는 줄 알고 지나는 말로 “집에서도 바이올린 연습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물었다. 그런데 대답은 전혀 달랐다. 여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인도대예요.” 라고 했다. 순간 나는 놀람과 감동이였다.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1학년, 그리고 막내가 유치원 다니는데,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린다. 부모 주도로 드리는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 5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미국 남침례신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인 티모시 폴 존스 교수가 “자녀의 신앙에 책임이 있다.” 라고 동의하는 미국 기독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주 동안 자녀들과 기도한 적도,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다고

한다<sup>101</sup>. 자녀의 신앙 형성에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머리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예배는 거의 없었고, 부모 자녀간 신앙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회학교에 떠 넘기고, 부모들의 역할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그들을 교회로 데려다 주고, 자신들은 성인 예배에 참여하였다가 끝나면 같이 집으로 오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102</sup>

한국기독교공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연중 기획 '신앙의 대잇기'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침체를 맞게 된 큰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자녀 세대로의 신앙의 대 잇기가 가정에 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sup>103</sup>

본보의 조사에 따르면 30, 40대는 사회적으로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이다. 그만큼 그들의 주제는 사회적인 성공(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과 함께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선 순위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또 자신들의 여가를 즐기는 데에 우선하는 세대이다. 신앙과 관련한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게 마련이다. 교회적으로 볼 때 30, 40대가 바른 신앙과 함께 교회 헌신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이전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녀 교육을 시켜 왔다면 30, 40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sup>104</sup>

<sup>101</sup>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10.

<sup>102</sup> Ibid.

<sup>103</sup> 한국기독교공보, “신앙의 대잇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6. 2~11월 기획연재.

<sup>104</sup> Ibid.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을 넘어가며 교회의 수적인 부흥과 함께 믿음의 세대도 5, 6세대로 이어지는 긍정의 면이 있는가 하면, 핵가족과 사회 분업화의 영향으로 가정 예배는 안타깝지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목적대로 창조하셨다. 특별히 가정은 특별한 목적 하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 기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빛나고 가치 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영적이며 동시에 혈연적 공동체다.<sup>105</sup>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세워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다.

### 1)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인 가정 예배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내는 최선의 자리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신형섭 교수는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명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8장을 근거로 제시한다.<sup>106</sup>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sup>105</sup>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12-13.

<sup>106</sup> 신형섭, 『예배 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4), 118-125.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세기 18:19)

아브라함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전하고 실천하는 장(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드렸는가를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에서 확인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을 듣게 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 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함께 간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산을 오른다. 그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 22:7) 묻는다. 10대 청소년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에 대한 훈련을 잘 받은 결과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을 장가보내기 위해 그의 아내 될 사람을 자신의 고향에 가서 구해오라고 부탁한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엘리에셀은 곧 예물을 준비해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다. 나홀의 성에 이른 엘리에셀은 우물 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sup>107</sup>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sup>107</sup> 박영호, 조병호, 『기적을 만나는 기도』 (서울: 통독원, 2022), 19-23.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창세기 24:12)

엘리에셀의 기도는 단 한 문장이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배웠다.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시날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시날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 돌아왔다. 그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노라 한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뜻별을 셀 수 없음 같이 네 자손을 이처럼 많이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결심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이삭이 태어났고,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어, 엘리에셀이 그의 아내를 구하러 와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창 24:12)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평생 주인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그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진 사람을 알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달아 기도한다.<sup>108</sup> 물을 길러 온 한 소녀에게 목마른 나그네인 자신이 마실 물을 구할 때, 자신은 물론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준다면 바로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배필이라고 알겠다는 기도였다. 엘리에셀이 이런 조건으로 기도하게

---

<sup>108</sup> Ibid., 25-33.

된 것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 온 여주인 사라의 삶이었다. 사라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천사를 대접하였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길 가는 나그네도 잘 대접할 줄 아는 품성을 지녀야 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사라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인 아들 이삭의 아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가정 예배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계속되었다.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왔다. 이후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 세대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교과서인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학습하게 하였으며,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는 신명기 6장의 웨마 말씀을 통해 가나안에서도 가정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랐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명기 6:6~9)

이후 가정 예배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 삶을 담은 유언에서 “여러분이 모시고 섬길 신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주를 섬길 것이요.” (수

24:15)<sup>109</sup>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선명하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가정 예배임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과 가정 예배에 관한 성경적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 칭하는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기 친척, 특히 자신의 직계 가족을 못 본 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는 이미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 (딤후전 5:8)<sup>110</sup> 이라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강조한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기르십시오” (엡 6:4)<sup>111</sup>라고 부모에게 제일과 최상의 사명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곧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 양육이 우선임을 바울은 강조한다.<sup>112</sup>

## 2) 가정 예배 핵심 원리

신형섭 교수가 제안한 가정 예배의 핵심 원리를 살펴보자.<sup>113</sup>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며, 현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편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가 제안한 가정 예배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sup>109</sup> 『쉬운말 성경』 (서울: 성서원)

<sup>110</sup> Ibid.

<sup>111</sup> Ibid.

<sup>112</sup> 신형섭, 『예배 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118-125.

<sup>113</sup> Ibid., 120-125.

첫째, 가정 예배는 숙제가 아닌 즐거운 책임이자 축복이다. 둘째, 가정 예배의 두 기둥은 은혜와 감사이다. 예배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감사이다. 즉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시작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다. 셋째, 말씀, 기도, 찬양은 가정 예배의 필수요소이다. 부모는 설교가 아닌 성경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준다. 넷째, 가정 예배는 모든 가족원들이 참여적이 되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드러져야 한다. 가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거나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 예배는 자녀들의 연령에 따른 심리, 인지, 도덕, 신앙발달 단계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정 예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한다. 여섯째, 가정 예배는 가정 안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함께 더불어 드러질 때 더욱 풍성해진다.

### 3) 사회 변동에 따른 가정의 신앙 교육 약화

사회라는 환경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사회 질서에서 다른 사회 질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사회 변동이라 한다. 인류의 역사를 대략 1만 2천 년 내외로 추정할 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기술적 발명은 거의 전부가 지난 2세기 동안에 일어났다. 대부분의 기술 혁신은 최근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룩된 것이다. 과거 사회 변동은 서서히 일어났기에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오늘날 사회 변동은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사회의 변화는 가정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를 변화시키며, 가족의 전반적인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114</sup>

3, 40대는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대로 할 것이다. 이들의 교회 내에서 모습을 살펴 보는 것으로 사회 변동에 따른 가정의 신앙 교육도 함께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sup>115</sup> 한국 교회에서 3, 40대는 그들 부모 세대들보다 교회 내에서 헌신적이지 않다. 이들 세대의 부모는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로, 그들은 일찍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에 헌신적으로 앞장섰다. 그러나 지금의 3, 40대는 자신들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 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버겁다.

오늘의 상황에서 3, 40대는 우선, 먹고 사느라 허덕이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빨라지는 정년, 그리고 늘어나는 개인 평균 수명을 대비한 노후 준비까지 한꺼번에 밀어닥친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들 세대는 치열한 경쟁과 쌓이는 빚으로 인해 자녀들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다. 이들 3, 40대는 X세대로 불리었던 세대다. 이들이 청년이었던 1990년 대 초반은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 세대였으며,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로 인해 자신의 경력에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피하려 한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잘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7, 80년대 경험한 부흥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

<sup>114</sup> 최정민, “기독교 가정 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논단』 51 (2019), 212-213.

<sup>115</sup> 한국기독교공보, “신앙의 대잇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6. 2~11 월 기획연재.

가려면, 그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현재의 3, 40대를 교회가 잘 품어야 한다. 교회가 이들을 포기하거나 간과해버리면 다음 세대인 이들 자녀 세대에게 아무리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더라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힘들게 된다. 자칫하면 한국 교회가 사사 시대로 빠져들 위험 있다.

한국 교회는 이들 세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요구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 경쟁과 자녀 양육으로 지친 그들을 도와 줄 대안이 총회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신앙의 대 역시 윗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흘러 간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 3, 40대를 봉사와 헌신의 주체로 보기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가정 예배다.

#### 4. 통(通)성경 가정 예배의 내용

가정 예배는 자녀와 함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건축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쉽다. 쉬운 만큼 홍수나 비바람에 쉽게 무너진다. 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나 비바람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녀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준다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다. 그와 함께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시켜 준다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림없이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고민되는 것이 가정 예배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 가정 예배지를 소개해 본다.

▶ 예시 1) 설교와 나눔을 함께하는 가정 예배

제목 : 예배의 설레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214장

본문을 소리 내어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15절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우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신 데 대해 분노한 결과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주시면서도 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이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아 기릅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제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농부인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목자인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벨은 제물을 드리러 오기 전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준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가인은 곡식 창고에 있는 일부를 가져와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참고, 히 11장 4절)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보다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가인



처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일로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 권고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늘 경계하여 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 먼저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건어차 버립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은혜의 증표를 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의 아들들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입니까? 나에게 좋은 예배입니까? 예배의 설레임을 위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며 연이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 ▶ 예시 2) 통성경 길라잡이로 드리는 예배

일년일독 성경통독표에 맞추어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녹음을 한다. 녹음한 내용을 가족, 또는 가정 교회 단톡방에 올려 공유한다. 그리고 통성경 길라잡이로 매주 1과씩

차례대로 예배를 드린다.

**찬 송** /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독성경** / 제 1일 창세기 1~2장 좋아, 토브, Good

**통성경길라잡이** / 1과 원역사, 1) 천지 창조

한여름 밤 어느 한적한 시골 들녘에서 가슴 속으로 쏟아질 듯 무수하게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겠구나! 창조자가 계시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 관해서 생각하듯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릴 만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셋째 날에는 궁창(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이미 만들어진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살아 있는 생명체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인간’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도록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창 1:21~2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또 복까지 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영어로는 ‘Good’, 히브리어로 ‘토브’ 우리 말로는 ‘정말 좋고 기쁘다’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되받기 원하고, 또 주면서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고 또 주시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복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1장에서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 / 314장 내 주구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 / 주기도 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

▶ 예시 3) 10분 원 스토리로 드리는 가정 예배

찬송 /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독구구단 3단 / 10분에 성경 전체 One Story<sup>116</sup> / 가족들이 함께 10분에 성경 전체 원 스토리를 소리 내어 읽는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흥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둔 이삭, 열 두 아들로 열 두 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애굽**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 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세대**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1단계 흥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이고, 룻기는 사사 시대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입니다.

2.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 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

<sup>116</sup> 조병호, 『성경통독 통구구단』, 111-116.

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 다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 보석 욥**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 왕조 200년** 동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B.C. 8세기 앗수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 할 때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 -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3.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밧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더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어 산헤드린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4.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때에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80여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므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에돔족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 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함으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략시킵니다.

5. 바로 이 때 B.C와 A.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

를 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밀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공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6.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열 두 사도들이 **제자 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 **2차, 3차,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 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 받는 형제로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 팀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울 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키고 그곳을 빠져 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사로 이송되고 다음 날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 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의 재판을 받던 중 산헤드린 공회의 살해 의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인 에베소서, **기독교론**인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 다시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7.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써 보냅니다. 바로 이 때 순교를 눈 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그 내용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

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 세대로 로마 대화재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 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 일·이·삼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 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계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 부흥 운동을 곱셈하며

교회 부흥 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 / 314장 내 주구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 / 주기도 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친다.

## 5. 성경통독 통통구구단(초급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들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조병호의 성경통독 통통구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경통독 통통구구단 초급반은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리도록 돕는다. 성경통독 통통구구단 초급반은 1단부터 3단까지 구성되어 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 권인 동시에, 각 책마다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 통통구구단 1단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중간사를 역

사순에 따라 7개 트랙으로 나누어 그 안에 성경 66권을 넣고 각 책의 시작과 끝 이야기를 연결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단계다.

<표-3> 성경 66권 시작과 끝 이야기<sup>117</sup>

트랙	성경	시작 이야기	끝 이야기
1. 모세5경	1 창세기	천지창조	요셉 유언
	2 출애굽기	갈대상자	성막 봉헌
	3 레위기	5대 제사	서원 예물
	4 민수기	인구조사	슬로브핫 법
	5 신명기	모압 평지	모세 죽음
	6 여호수아	입(入) 가나안	요셉 장사
	7 사사기	유다 지파 땅 정복	베냐민 지파 쇠락
	8 룻기	모압 이주	보아스 족보
2.	9 사무엘상	한나 기도	사울 자결
	10 사무엘하	다윗 애가	다윗 제사
	11 열왕기상	솔로몬 즉위	아합 죽음
	12 열왕기하	엘리야의 불	남유다 멸망
	13 잠언	솔로몬의 잠언	르무엘 어머니
	14 아가	솔람미 여인	죽음보다 강한 사랑
	15 전도서	해 아래 헛수고	청년 때
	16 욥기	하늘 자랑 욥	욥의 기도
	17 시편	복 있는 사람	호흡 있는 자
	18 아모스	각 나라 죄	본토에 남은 자
	19 호세아	고멜과 결혼	호세아 절규
	20 요나	다시스 배	박 넝쿨 비유

<sup>117</sup> 조병호, 『성경통독 통구구단』, 11-13.

왕정500년	21	이사야	이사야가 본 계시	새 하늘 새 땅
	22	미가	두 도시에 대한 묵시	하나님 찬양
	23	스바냐	여호와와의 날	남은 자의 명성
	24	하박국	하박국 질문	하박국 찬양
	25	나훔	니느웨 경고	니느웨 황무
	26	요엘	메뚜기 비유	그날에 대한 예언
	27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름	불타는 예루살렘
	28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 애곡	예레미야 기도
	29	오바다	에돔 멸절	나라가 여호와께
	30	역대상	아, 아 족보	다윗 예물
	31	역대하	솔로몬 번제	고레스 명령
3. 페르시아7권	32	에스겔	에스겔 부름	여호와 삼마
	33	다니엘	1차 포로	마지막 때 예언
	34	에스라	귀환 명령	에스라 개혁
	35	학개	건축 시기	내 종 스룹바벨
	36	스가랴	다리오 왕	남은 자 초막절
	37	에스더	왕의 잔치	부림절 제정
	38	느헤미야	금식 기도	안식일 개혁
	39	말라기	사랑 고백	아버지 마음
4. 중간사 400년			신·구약 중간사	
5. 4복음서	40	마태복음	아, 다 족보	지상명령
	41	마가복음	세례 요한	우편 좌정
	42	누가복음	세례 요한	예수 승천
	43	요한복음	태초 말씀	부활 후 조찬
	44	사도행전	예수 승천	죄수 바울
	45	데살로니가전서	믿는 자의 자랑	강림 강조
	46	데살로니가후서	교회 격려	규모 있는 신앙
	47	갈라디아서	오직 복음	예수 흔적
	48	고린도전서	교회 안부	예루살렘 교회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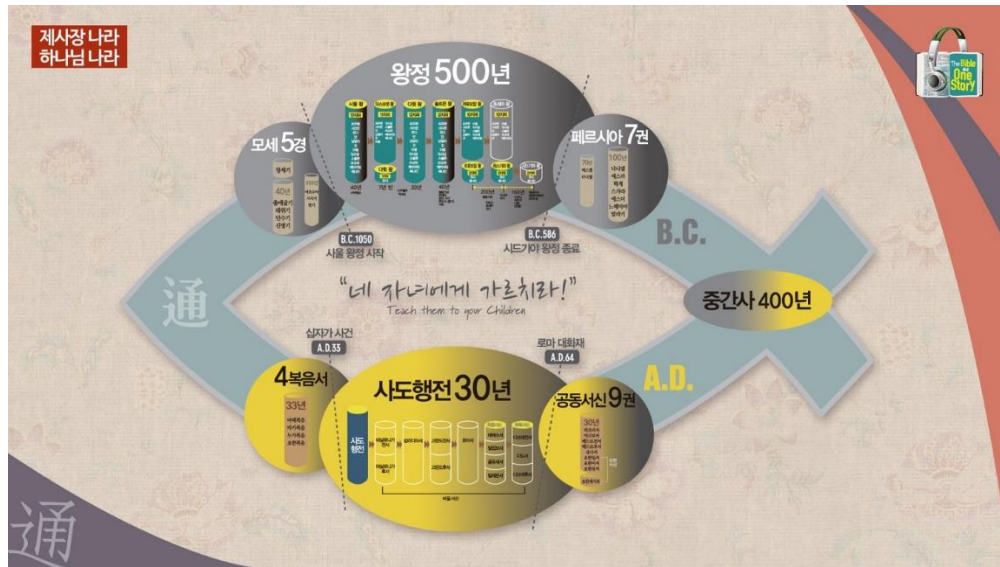


6. 사도행전 30년	49	고린도후서	교회 안부	세 번째 갈 계획
	50	로마서	교회 안부	서로 문안
	51	에베소서	창세 전 예정	두기고 파송
	52	빌립보서	감사와 간구	선물 감사
	53	골로새서	교회 안부	친필 문안
	54	빌레몬서	빌레몬 칭찬	오네시모 형제
	55	디모데전서	믿음의 아들	선한 싸움
	56	디도서	디도 남긴 이유	급히 오라
	57	디모데후서	디모데 가족	속히 오라
7. 공동서신 9권	58	히브리서	구약 선지자들	예수께 나가자
	59	야고보서	열두 지파에 문안	의인의 간구
	60	베드로전서	부활 소망	장로들에 권면
	61	베드로후서	장막 벗을 날	성경 억지로 풀지 말라
	62	유다서	힘써 싸우라	공홀히 여기라
	63	요한일서	하나님과 사귄	하나님께 속한 자
	64	요한이서	서로 사랑 당부	사도 요한 소망
	65	요한삼서	가이오 축복	사도 요한 소망
	66	요한계시록	빛모섬 요한	속히 오리라

통구구단 2 단은 익투스-통通 7 트랙을 익히고 1-7 트랙까지 10 분씩 이야기 하는 것이다.<sup>118</sup> 이렇게 성경 전체를 10 분에 암기하게 하는 것은 통성경 길라잡이 52 과를 10 분씩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sup>118</sup> Ibid., 79-81.

&lt;그림-8&gt; 통 7 트랙



1. 모세5경 - 제사장 나라
2. 왕정 500년 - 제사장 나라와 선지자
  - 2-1. 선지자 사무엘, 첫 번째 왕 사울
  - 2-2. 선지자 예레미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3. 페르시아 7권 - 제사장 나라와 제국
4. 중간사 400년 - 제사장 나라와 유대 분파
5. 4복음서 - 하나님 나라
  - 5-1. 십자가 - A.D.33(30)
6. 사도행전 30년 - 하나님 나라와 복음 1세대
  - 6-1. 로마 대화재 사건 - A.D.64
7. 공동서신 9권 - 하나님 나라와 복음 2세대

통구구단 3단은 성경을 틀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분에 성경 전체 원 스토리’의 1번부터 3번은 구약 성경 이야기로, 1번은 모세 5경 이야기, 2번은 왕정 500년 이야기, 3번은 페르시아 7권 이야기이다. 4번은 중간사 400년 이야기이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신약 성경으로, 5번은 복음서 이야기, 6번은 사도행전 30년 이야기, 그리고 7번은 공동 서신 9권 이야기다. 통구구단 1단에서 시작과 끝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익힌 후, 통구구단 2단에서 통 7트랙을 각 트랙 10분 이야기와 함께 공부하고, 그 기반 위에 통구구단 3단 ‘10분에 성경 전체 원 스토리’를 외워 두면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슴속에 성경 전체가 새겨질 것이다. 그러면 성경 어느 부분을 공부해도 틀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조병호는 강조한다.<sup>119</sup>

---

<sup>119</sup> Ibid., 111-112.

## V. 통(通)성경과 서산교회 300 가정 학교 양육 체계의 실제

### 1. 리더 스쿨 - 초등학교 5학년 대상 통(通)성경학교

“사람은 떠나도 제도는 남는다.”<sup>120</sup>, “변화는 반드시 본질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는 박양규 목사가 자신의 책 『리셋 주일학교』에서 한 말이다. 유럽의 아버지라 불리는 샤를마뉴는 여기 저기 흩어진 제도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재편해서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군제를 기마병 중심으로 정비했다. 그리고 학자들을 초청해 대학의 기틀도 만들었다. 샤를마뉴는 떠나도 그가 만든 제도는 유럽을 지배했고, 중세를 남겼다. 그는 권력을 가져야 하는 목적을 알고 권력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여 후대까지 그의 영향력을 미쳤다.

필자는 2005년 서산교회에 부임했다. 1947년, 서산 인근에서 장로교로는 처음 세워진 서산교회는 지역 내 어머니 교회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장로교의 시작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서산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무엇이 없었다.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얻은 결론 두 가지를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다.

첫째는 서산의 1/10을 제자 삼는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자. 제자훈련 과정으로 전도폭발 훈련 - 어, 성경이 읽어지네 - 제자훈련, 사

---

<sup>120</sup> 박양규, 『리셋 주일학교』 (서울: 샘솟는 기쁨, 2023), 32-33.

역 훈련<sup>121</sup>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대대를 이어 가자.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리더학교를 시작했다. 리더학교는 18세기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시대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8세기 영국의 촉망 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20대 초반에 영국 의회에 진출했었다. 그런 그가 아이작 밀러를 만나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후, 노예 무역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의회에서 이를 법제화함으로 노예제 폐지에 큰 발걸음을 띠게 하였다.

“크리스천은 깊은 영성을 가지며 세상과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윌버포스의 이 말에 힘을 얻어 21세기 리더 학교를 시작하였다. 2007년 정책 당회 때 우리 교회가 21세기 리더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와 목적을 당회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주일에 교회 창립 100주년에 대한 청사진을 예배 시간에 선포하였다.

‘서산의 1/10을 제자 삼는 서산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서산 교회’

창립 60주년인 오늘부터 100주년을 맞이할 때, 그 때 우리 서산 교회는 이 두 가지 비전을 이루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되게 하자.

지금부터 40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각 분야를

<sup>121</sup> 옥한흠, 『제자훈련 1, 2, 3단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주도하는 탁월한 리더로 길러내자.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공부하는 커리큘럼을 준비하였다. 2년의 준비기간 동안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는 교회와 기관, 세미나를 부지런히 찾아 다니며 보고 듣고 배웠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0년에 21세기 리더 학교가 시작되었다. 입학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수업 연한은 2년, 교과목은 성경, 국사, 세계사, 논술, 그리고 학기 중 2번의 캠프와 해외와 국내 체험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확인하고 몸으로 습득하게 했다.

다음은 리더 학교 때 사용한 자료들이다.

## &lt;그림-9&gt; 21세기 리더 학교 입학원서

## 21세기 리더 학교 입학원서

컬러 사진 3cm×4cm	지원자 성명(한글):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M) <input type="checkbox"/> 여(F)			
	지원자 성명(영문):	주민번호:			
	재학중인 학교:	생년월일: 년    월    일 (양, 음)			
지원구분		수학 동의 여부 (모든 항목에 동의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현주소:  (우편번호:            )	기독교 교육	예(    ), 아니오(    )			
	리더십 캠프	예(    ), 아니오(    )			
	현장체험학습	예(    ), 아니오(    )			
	비전 트립	예(    ), 아니오(    )			
가족 관계/ Family Information					
관 계	성 명	주 민 번 호	직 업	종교, 침/세례, 직분	핸드폰번호
기타사항/ Reference					
예능특기			독해 및 독서논술능력<학년 기준> 상 (    ) · 중 (    ) · 하(    )		
스포츠특기			교회 출석 (    년 )부터 (    년 )까지		
취미			장래희망		
특이질병/체질			특이정보		
해외연수 경험여부 <input type="checkbox"/> 언어연수 <input type="checkbox"/> 유학 (1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유학 (2년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희망 학교 <input type="checkbox"/> 해외유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소재대학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첨부서류: 1.입학원서 2.자기 소개서 3.학부모 지원 동거서

<그림-10> 21세기 리더 학교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21세기 리더학교

2014학년도

접수 번호		성 명	
※ 다음은 자기 소개서에 포함해야할 내용들 입니다.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지침 ]			
1. 한 문항도 빠지 않고 순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2. 반드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하며, 초과 작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기소개서는 평가 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십시오.			
4. 자기소개서는 문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1) 자신의 성장배경(가족관계)			
2)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공동체 활동 경험			
3) 지원하게 된 동기			
4) 자신의 비전(꿈) 소개			
5) 자신의 장점과 단점 (특기, 적성 및 성격 소개)			
6) 봉사활동 및 수상여부			



## &lt;그림-11&gt; 21세기 리더 학교 학부모 지원동기서

## 학부모 지원동기서

21세기리더학교

1. 본교를 알게 된 경로	
①교회 광고(     ), ②인터넷(     ), ③주변소개(     ), ④전단지(     ), ⑤그 외 (     )	
2. 자녀를 리더학교에 지원시키게 된 동기	
3.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	
작성자 : (부) (모)	성 명 :
	연락처 :

## <그림-12> 21세기 리더 학교 독서논술스쿨 2013년 교육계획 안내

### 21세기 리더학교 독서논술스쿨 2013년 교육계획 안내

#### 1. 교육 기간

:2013년 3월 2일부터 2014년 1월 26일까지(10개월)

:8월 한 달 방학

#### 2. 교육 내용

구분	내용	운영 시간	장소	강사	준비물
A 반 (6학년반)	세계사2,3권	매주 토요일 저녁7시30분 -9시 10분	교육관 3층	김명희집사 정지영집사	세계사교재 논술교재 필기도구 형광펜,포스트잇
	갈래별 글쓰기			이명숙사모님 안영미집사	성경 필기도구
	신약일독교실 리더십 강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B 반 (신입반)	한국사편지 1권-5권까지 세계사 1권-3권 역사논술	매주 주일 오전 10시30분 -12시까지		김명희집사 최태근집사	한국사편지교재 세계사 교재 필기도구 형광펜,포스트잇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초급 응시	2013년 8월10일(토)		김명희집사 최태근집사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대비 교재
	구약일독교실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이명숙사모님 박현선집사 정소영집사	성경 필기도구

#### 3. 공통교육과정

내용	운영 일시	장소	비고
비전트립	2013년 7월 29일(월)-31일(수)	일본 대마도	
1차 역사캠프	2013년 5월 17일(금)-18일(토)	강화도	
2차 역사캠프	2013년 6월 6일(목)	서울 성곽	
3차 역사캠프	2013년 10월 3일(목)		

#### 4. 감사헌금(교육비)

: 매월 50,000원

(3,5,7,9,11월 셋째 주일에 100,000원씩 정해진 노란 봉투에 학생의 이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21세기 리더학교 개강예배

:2013년 3월 3일 오후예배-학생, 학부모 전원 참석 바람

21세기 리더 학교는 교실 수업과 함께 체험 학습,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그들이 배운 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해보는 리더십 캠프 과정이 있다. 리더십 캠프는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두 사람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강의, 그리고 체험으로 준비하였다.

첫 번째 캠프는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였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목적은 분명했다. 모세에게 훈련 받은 60만 만나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한 온전히 순종하였다. 리더는 자신의 순종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모세로부터 잘 훈련 받은 만나세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

성경에는 모세, 다윗 등 유능한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sup>122</sup>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모세의 영향력에서 나온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함께하며 모세의 리더십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채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2호로 충분히 행복했다. 강의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연극 대본을 쓰고, 배역을 정하고 연습해서 시연하는 것까지 캠프 기간 내 진행한다. 교사의 역할은 최소로하고 학생들이 그들이 연구한 성경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보는 시간이다.

---

<sup>122</sup> 존 맥스웰,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34-37.

<그림-13> 21세기 리더 학교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 1

**2010년도**

**21세기 리더학교 독서논술스쿨**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

-약속의 땅을 찾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산교회 21세기 리더학교**

<그림-14> 21세기 리더 학교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 2

## 목 차

일 정 표 .....	1
주제 강의 ..... 장상철 목사님 .....	2
여호수아의 군대 ..... 주제 찬양 .....	4
약속의 땅을 찾아서 ..... 이명숙 사모님 .....	5
무너진 여리고성 ..... 드 라 마 .....	14
이스라엘 12지파와 가나안 분할 ..... 지 도 .....	21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 5~6)

### <그림-15> 21세기 리더 학교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 3

#### 21세기 리더학교 여호수아 리더십 캠프

-약속의 땅을 찾아서

- ♣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23일(토)
- ♣ 장소: 교육관 1,2,3층
- ♣ 대상: 21세기 리더학교 독서논술 스쿨 학생 8명
- ♣ 일정표

일정	내용	담당	준비물	비고
22일				
19:00~19:30	저녁식사	학부모님	학생8, 교사8	16인분 식사
19:30~20:00	주제노래 익히기	허선화,최현실집사님	악보, 빔프로젝터	교육관 2층
20:00~20:30	주제 강의	장상철목사님	교재	
20:30~20:50	즐거운 게임	최경성,최태근집사님	게임 준비물	교육관 1층
20:50~21:00	휴식 및 간식	학부모님		16인분 간식
21:00~23:00	레위기, 민수기 가나안문화와 종교	이명숙 사모님	이미지 자료 빔 프로젝터	교육관 2층
23:00~23:10	휴식			
23:10~24:30	영화 감상 (이집트왕자)	백상화집사님 오영길집사님	동영상과일 빔 프로젝터	교육관 2층
24:30~ 23일 06:30	취침	남-노인수장로님 여-김명희선생님	개인별 침구 및 세면도구	
06:30~07:40	세면, 경건의시간 아침 운동	경건-장상철목사님 운동-최태근집사님	성경 간편한 신발	
07:40~08:10	아침식사	학부모님	학생8, 교사8	16인분 식사
08:10~08:30	자유시간			
08:30~09:00	게임 및 활동	최태근집사님	게임 및 활동 준비물	
09:00~10:00	신명기	이명숙사모님		
10:00~11:00	여호수아 드라마	김명희,정용자집사님 신선옥,신연희집사님	드라마 대본 드라마 소품 준비물 일체	조별 활동
11:00~11:10	휴식 및 간식	학부모님		
11:10~12:30	아이 성 참패와 땅 분배 여호수아 유언	지도-안영은집사님 이수영성도님 박현선집사님 유언-이진집사님	지도 세팅 -교육관 2층 유언장 준비	
12:30~13:00	점심식사	학부모님	학생8, 교사8	16인분 식사
13:00~13:30	즐거운 활동	송영석,박종일집사님 백주형성도님	게임 및 활동 준비물	
13:30~14:00	골든벨을 울려라	이진집사님		
14:00~14:30	수료식(시상식)	김명희선생님 수료증전달 및 시상 -장상철목사님		
14:30	파송 및 다짐의 시간	이진선생님	촬영- 노인수장로님 최태근집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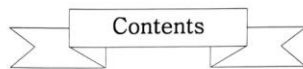
두 번째 캠프는 페르시아 7권을 공부한 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 캠프를 실시하였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설득으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울 꿈을 꾸며 포로기 70년의 기간 동안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둬낸 1차 귀환자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다. 2차 귀환의 인도자인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에 사법과 행정 시스템을 구비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리셋하였다. 하만의 흉계를 잘 이겨낸 후 이어진 3차 귀환에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그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성벽 재건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누구도 감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꿈을 품었고, 마침내 실행하였다. 술한 음모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귀환 세대를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 느헤미야 리더십 캠프를 실시하였다

<그림-16> 21세기 리더 학교 느헤미야 리더십 캠프

느헤미야 리더십 이야기

세상 중심에 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산교회  
21세기 리더학교 독서논술수업



느헤미야 리더십 이야기: 세상 중심에 서다

<b>PART I. 기도로 시작하는 리더</b>	
1. 기도의 크기를 키우라.....	1
2. 상황 리더십을 발휘하라.....	8
<b>PART II. 도전하는 리더</b>	
1. 치밀하게 준비하라.....	12
2. 팀 워크로 일하라.....	16
<b>PART III.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b>	
1. 일꾼이자 리더가 되라.....	19
2. 내부의 분열을 막으라.....	21
3. 최우선 순위에 집중하라.....	23



느헤미야 리더십 이야기: 세상 중심에 서다

<b>PART IV. 성공을 관리하는 리더</b>	
1. 성공을 정착시키라.....	25
2. 영성을 회복하라.....	28
3. 부흥의 불을 지피라.....	31
<b>PART V. 계획을 완성하는 리더</b>	
1. 말씀을 실천하라.....	34
2. 휴식과 축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	37
3. 삶의 방식을 바꾸라.....	40



존 맥스웰은 "누구에게나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리더십이 없으면 큰 성공은 불가능하다. 좋은 리더십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잠재력의 작은 일부밖에 이루지 못한다. 높이 오르고 싶은가? 그러려면 좋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큰 영향력을 미치려면 큰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sup>123</sup>

21세기 리더 학교의 목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맥스웰의 말처럼 좋은 리더십, 큰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을 갖추어 주기 위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실에서 성경과 세계사, 한국사를 배우며, 학기 중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박물관 견학, 전시회 참관, 뮤지컬이나 연극 등 관심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꼭 경험하게 하였다.

2012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터키문명전: 이스탄불의 황제들’을 기획 특별전으로 전시했었다. 5월 28일이 석탄일 공휴일이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1박 2일로 서울로 역사체험 캠프를 다녀왔다. 터키 이스탄불 특별전 관람과 함께 경복궁도 둘러보았다.

---

<sup>123</sup> Ibid.,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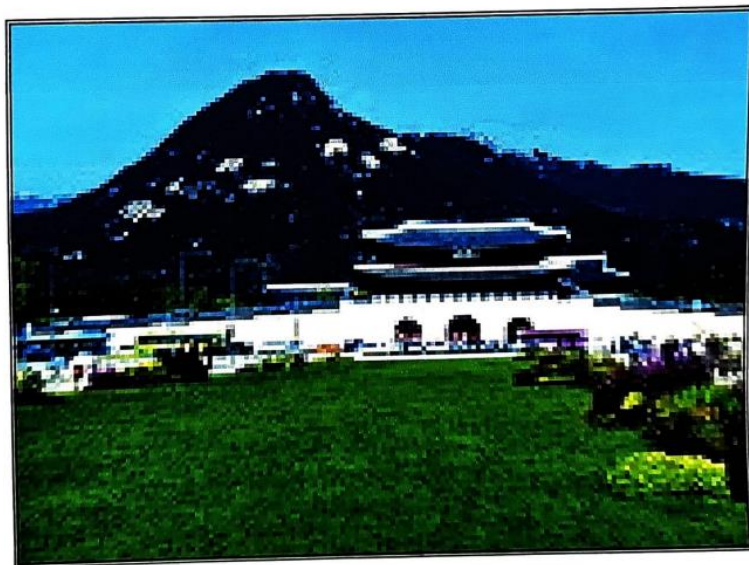
<그림-17> 21세기 리더 학교 역사체험 캠프

2012학년도

21세기리더학교 역사체험 캠프

우리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2012.5.27(주일)-5.28(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산교회 21세기리더학교

21세기 리더 학교는 강의와 교실에서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자녀들에게 넓은 세계를 보여주려 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겐 일본 비전 트립을, 중학교 3학년에겐 싱가포르와 동남아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겐 영국을 중심한 유럽 비전 트립을 계획했었다.

그 첫 걸음으로 2010년 일본 동경을 다녀왔다.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교사와 학생 13명이 금요일 출발하여 3박 4일 동안 다녀왔다. 주일에 일본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 아이들과 우리 리더학교 아이들이 함께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통역을 통한 다소 불편한 시간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같은 또래의 일본 아이들과 격의 없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미래와 비전을 나누었다. 동경에선 3, 4명씩 조를 짜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실제 일본 사람들의 생활도 함께 체험했었다. 계속해서 진행하려 했으나 교회 내 사정으로 일회성에 그친 것은 두고 두고 아쉽다. 그 아쉬움을 대마도, 베트남 비전트립으로 대신하였다.

대마도는 임진왜란 후 조선과 일본 정부와의 국교가 회복되면서 조선에서 사절단으로 조선통신사를 12회에 걸쳐 일본으로 파견하여 양국의 우호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92년 조선통신사비가 건립되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따님 덕혜옹주와 대마번주소 다케유키(宗武志 종무지) 백작의 정략 결혼과 이를 기념한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도 대마도에 있다.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 4주간 일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 &lt;그림-18&gt; 21세기 리더 학교 2011 일본비전 트립 1

## 21세기리더학교 2011 일본비전 트립 참가자 명단

## 충남 서산시 서산교회

연번	이름	한자	영문	성별	구분
1	장상철	張相哲	CHANG SANG CHUL	남	담임목사
2	이명숙	李明淑	LEE MYUNG SOOK	여	사모님
3	염철규	廉澈圭	YUM CHUL GYU	남	장로님
4	김명희	金明姬	KIM MYOUNG HEE	여	집사
5	이진	李鎭	LEE JIN	여	집사
6	백향목	白香木	BAEK HYANG MOK	남	초 5
7	박준수	朴俊秀	PARK JOONSOO	남	초 5
8	노시헌	盧市憲	NO SIHEON	남	초 5
9	오진주	吳珍主	OH JINJU	여	초 5
10	최은지	崔恩知	CHOI EUNJI	여	초 5
11	백희원	白熙元	BAIK HEEWON	여	초 6
12	송제혁	宋濟赫	SONG JEIHYUK	남	초 6
13	이승원	李昇原	LEE SEUNGWON	남	초 6
교회 주소		충남 서산시 동문동 971-2번지 전화:041)664-0404~5			
장상철 담임목사님 전화번호		010-9054-2613			
김병호선교사님		070-7516-4134, 81-80-4377-3927			
일본연락처		4-5-1 Nishiaraihoncho, Adachi-ku, Tokyo ☎ : 03-3890-3365 재일대한기독교회 니시아라이(西新井)총회신학교			

<그림-19> 21세기 리더 학교 2011 일본비전 트립 2

기도제목: 1. 오가는 항공편의 안전행과 좋은 날씨  
 2. 참석자 모두의 건강과 영적인 편안함  
 3. 일본 선교사님, 인본교회의 좋은 만남  
 4. 선교사님들의 위리악성들의 귀과방제이 더하고 아름답게  
 21세기 리더학교 일본 비전 트립 일정표

날짜	시간	내용	준비물	참고사항
1월 21일 (금요일)	05:00-07:00	서산-김포공항	교회에 새벽 5시 집합	교회차로 이동
	07:00-08:40	출국 수속	여권, 여행가방	아시아나 항공기
	08:40-10:45	김포-하네다		김병호목사님 한성현목사님
	10:45-12:00	입국 수속	여권	명찰 착용
	12:00-12:30	점심 식사		
	13:00-18:00	아오야마묘지 메이지 신궁 신주쿠도청전망대, 아사쿠사센소지(절)	승합차 2대	현지안내 :선교사님 두 분
	18:00-19:00	저녁 식사		
	20:00-22:00	특강	일본의 문화, 역사, 선교 상황 등	김병호선교사님
	22:00~	경건의 시간 및 휴식, 취침	재일대한기독교회 신학교 숙소(2층)	큰 방 3개
1월 22일 (토요일)	07:00-08:00	기상,세면,경건의 시간,아침식사	성경책 아침식사 자체해결	세면도구 햇반, 컵라면 밀반찬 등
	08:00-09:00	숙소 출발		
	09:00-12:00	동경 디즈니랜드 체험놀이마당	명찰 패용	승합차 2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9:00	동경 디즈니랜드		승합차 2대
	19:00-20:00	저녁 식사		
	20:00~	디즈니랜드 출발		
21:00~	경건의 시간 및 휴식, 취침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신학교 숙소	큰 방 3개	

1월 23일 (주일)	07:00-08:00	기상, 세면, 경건의 시간		
	08:00-09:00	아침식사	자체 해결	
	오전	니시야라이교회 (예배와 인사)	명찰, 선물 한국찬송 1곡 준비	숙소와 같이 있는 건물 (3층)
	12:30-13:30	점심식사		
	13:30~	일본교회 향하여 출발		전철 이용
	오후 14:30~	일본교회방문(미나미미타카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어린이들과 교류회) "예수사랑하심은"찬송 함께 부르기		각자 교회 소개 질의·응답
	17:00-20:00	일본교회 출발, 동경시내 야경 (오다니바)		
	20:00~	경건의 시간 및 휴식, 취침	재일 대한기독교회 총회 신학교 숙소	큰 방 3개
1월 24일 (월요일)	07:00-08:00	기상, 세면, 경건의 시간		
	08:00-09:00	아침식사	자체 해결	
	09:00-12:00	하코네로 이동	100km 떨어짐	승합차 2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하코네 시내 견학, 후지산 체험		승합차 2대
	15:00-17:00	공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여권, 여행가방	
	17:00-19:00	간단한저녁식사, 및 탑승 수속		기내식-저녁
	19:30-21:35	하네다-김포		아시아나 항공기
	21:35-23:30	입국 수속 및 그리운 집으로~	여권, 여행가방	교회차로 이동

※ 세면에 필요한 치약, 비누는 각 2개씩만 준비하여 같이 사용함 비누와 수건장  
 ※ 전압 100V 이므로 연결 부분 필요, 잘 때 따뜻한 잠옷, 내의 착용 필요함 성격차자본것  
 남아서 15분간 기도!!! 피어릿 1번  
 특별새벽기도, 1월11, 11, 12, 20일 속옷 3벌

## &lt;그림-20&gt; 21세기 리더 학교 2011 일본비전 트립 3

## 9. 체험학습 보고서 및 일기장

날짜	2011년 1월 일 요일
체험학습장소	
주제 및 제목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낌, 생각	
기도 제목	

## 2. 교회학교 바이블 클래스

21세기 리더학교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성경과 세계사, 국사에 특화된 교육이라면, 바이블 클래스는 주일 오후 교회학교 유, 초등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와 특별 활동 과정이다. 2005년 토요 휴업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토요 모임을 시작했다. 헤븐 키즈란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임을 가졌다. 1교시 성경 공부, 2교시 달란트 모임 - 탁구, 배드민턴, 사진, 농사 체험 등, 식사 후 귀가한다.

헤븐 키즈 모임이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처음에는 부모의 스케줄에 시간을 맞추던 자녀들이 이제는 자녀들의 헤븐 키즈 시간에 부모들이 시간을 맞추게 되었다. 헤븐 키즈 모임이 해를 거듭할수록 봉사하는 교사들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봉사하는 교사들 중에 믿지 않는 남편, 주일 예배로 만족하는 남편들로 인한 교사 민원(?)을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헤븐 키즈 토요 모임을 주일 오후로 시간대를 이동하기로 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점심 후 오후 2시부터 바이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 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총 6개월 모임을 가졌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 주일 예배와 바이블 클래스에 적극 참여하니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부모들도 아이들 때문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1,2학년은 성경 탐험대로, 3,4학년은 기도학교로, 5,6학년은 주기도문으로 학년별로 연령대에 맞춘 말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lt;표-4&gt; 말씀 훈련 프로그램 - 주기도문(5-6학년)



주기도문(5,6 학년)



일정		2023. 3. 5 ~ 5. 21(12회)
담당 교사		안 영 미
장소/준비물		세미나실 / 성경, 주기도문 교재, 필기도구
회차	날짜	교육 내용
1	3/5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2	3/12	우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3	3/19	이름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4	3/26	거룩히 여김을: 거룩한 게 뭐예요?
5	4/2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진짜 국적
6	4/9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그분의 의지
7	4/16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8	4/23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9	4/30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
10	5/7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유혹과 단련
11	5/14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승리
12	5/21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p>◆ 학습목표 :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고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를 할 수 있다.</p> <p>◆ 학습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도에 필요한 기초를 세워줍니다.</li> <li>2.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받으시는 기도인지 배울 수 있다.</li> <li>3. 주기도문을 기초로 삼아 좋은 기도의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다.</li> <li>4. 주기도문을 익히고 나의 고백을 삼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li> </ol> <p>*1학기는 주기도문/ 2학기는 소요리문답으로 수업합니다.</p>		

## &lt;표-5&gt; 말씀 훈련 프로그램 - 기도학교(3-4학교)



기도학교(3,4 학년)



일정	2023. 3. 5 ~ 5. 21(12회)	
담당교사	이 효 진	
교재	“이렇게 기도해요” -헬렌 헤이들 지음	
장소	어린이부 입구방	
회차	날짜	교 육 내 용
1	3/5	기도는 천국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2	3/12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3	3/19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4	3/26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어요
5	4/2	‘아버지’ 라고 부르세요!
6	4/9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할까요?
7	4/16	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8	4/23	도와 달라고 외치세요!
9	4/30	걱정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10	5/7	기도하면 산도 움직이나요?
11	5/14	홀씨, 연어, 어부에게서 배워요
12	5/21	놀라우신 하나님
<p>◆ 학습목표 :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야기이며 영적인 호흡이기에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등을 잘 학습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간다.</p> <p>◆ 학습내용 : 기도에 관한 말씀 내용 공부하기, 내가 드리는 기도, 기도 상자, 말씀의 보물 상자</p>		

<표-6> 말씀 훈련 프로그램 - 성경탐험대(1-2학교)



성경탐험대(1,2 학년)



일정	2023. 3. 5 ~ 5. 21(12회)		
담당교사	김 상 옥		
교재	히즈쇼 성경공부 +성경찾기, 성경목록가		
장소	어린이부실		
회차	날짜	교 육 내 용	
1	3/5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사무엘하
2	3/12	아담과 하와	열왕기상~잠언
3	3/19	노아 이야기	전도서~아모스
4	3/26	바벨탑 이야기	오바다~말라기
5	4/2	아브라함과 이삭	구약 총정리
6	4/9	야곱 이야기	마태복음~갈라디아서
7	4/16	요셉 이야기	에베소서~빌레몬서
8	4/23	모세 이야기 1	히브리서~요한계시록
9	4/30	모세 이야기 2	신약 총정리
10	5/7	사사 이야기	구약, 신약 총정리-게임
11	5/14	사무엘 이야기	나만의 성경 만들기
12	5/21	예수님 이야기	성경목록가 노래 대회
<p>◆ 학습목표 : 히즈쇼-말씀 암송(성경 찾기), 말씀 영상 성경목록 순서를 익히고, 신속 정확하게 성경을 찾을 수 있다</p> <p>◆ 학습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물처럼 귀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다.</li> <li>2. 어린이들은 성경탐험대가 되어 성경 속 9가지 보물을 찾는다.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매주 1가지씩 보물을 찾을 수 있다!)</li> <li>3.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li> <li>4. 말씀을 탐구할 때, 보물을 찾는 기쁨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li> </ol>			

바이블 클래스도 코로나 19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모임을 2년 동안 중단하였다. 중단되었던 바이블 클래스가 코로나 19로 바이블 클래스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바이블 클래스 모임을 갖게 되었다. 21세기 리더학교 주 과목이었던 통통성경길라잡이를 중심으로 학년별로 차등을 두어 바이블 클래스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 <표-7>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 10분 원 스토리

목 표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일 시	2023년 2월 25일(토)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 어린이부실		
준비물	성경책, 필기도구, 교회 가방		
오전 시간	프로그램	오후 시간	프로그램
9:30~10:00	오프닝 예배	1:00~1:50	2과 중간사400년~공동서신9권
		1:50~2:00	찬 양
10:00~10:50	1과 모세오경~페르시아7권	2:00~2:50	코스활동 2 - (1, 2, 3)
10:50~11:10	찬양	2:50~3:00	찬양
11:10~12:00	코스활동 1 - (1, 2, 3)	3:00~4:00	와글 와글 페스티벌 감사 기도
12:00~1:00	맛난 점심시간	4시~	집으로 go go~~

### 3. 향존직 통통성경학교

자녀들을 조선 시대 최고의 학자와 예술가로 키워 낸 신사임당의 교육 철학은 항상 자녀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 공부하라 말하기 보다는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이며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실천하였고, 예의에 어긋나거나 나쁜 말을 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으면서 예의 바른 생활이 몸에 배도록 가르쳤다고 한다. 모세도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의 중요함을 만나세대에게 강조하면서 부모가 먼저 그 본을 보이게 했다.

그렇다.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 가려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2호 시민 되기 위해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 가고 난 후,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서산교회는 교회 이전과 교육관 건축 과정에서 향존직 몇 사람들의 궤방으로 교회 전체가 수 년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교회 이전과 교육관 건축은 교회 설립 100 주년의 비전을 위한 시작이었는데, 첫 단계에서부터 교회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를 극복하고 교회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 리더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담임목사와 향존직의 생각은 하나되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3월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통통성경 길라잡이』를 교제로, 시무장로 4명, 안수집사 12명, 권사 19명, 총 35명이 1년 동안 향존직 제1기생으로 공부했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일 예배와 부서 봉사를 마치고, 오후예배까지 참석하고 난 후이니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 수업 시간에 잠깐씩 졸지 언정 결석자 없이 과정을 마쳤다.

말씀의 효과는 놀라웠다. 향촌직 통통성경학교 이후 교회는 빠르게 치유되기 시작했다. 향촌직들의 활기찬 모습에 성도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향촌직 통통성경학교를 꼭 해야겠다고 그 계기가 된 것은 2017년 향촌직 피택자 훈련이었다. 이전까지 교단 총회 훈련 교재<sup>124</sup>로 피택자 훈련을 했었다. 이번부터 『통통성경 길라잡이』를 주 교재로 하여 정해진 3개월 교육을 했었다.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교육 효과는 아주 좋았다. 매주 시작하기 전 상당한 분량의 성경 쪽지 시험을 보았는데, 성경을 알아가는 실력들이 상당했었다. 이에 자신을 얻어 향촌직 통통성경학교를 그 다음 해 시작하게 되었다. 향촌직, 가정교회 가장들로 먼저 통통성경학교를 경험하게 함으로 서산교회는 통통성경학교를 통한 가정 예배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대 잇기에 올인한다는 것을 전 교인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 4. 평신도 통통성경학교 리더 교육

##### 1) 가정교회, 가장 통통성경학교

향촌직 통통성경학교를 마친 다음 해인 2019년에는 가정교회 가장, 총무들을 대상으로 통통성경학교가 실시되었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38개 가정교회 중에서 26명의 가장, 총무가 참석하였다. 직장인들을 위해 목요일 저녁반도 개설하였다. 기간은 수요일

<sup>124</sup> 김치성, 『피택향촌직 교육교재 충성된 일꾼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장로, 전도사, 신학후보생 종합고시 문제집』 (2017).

과 같고,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진행했다. 제 1기 저녁 직장인 반에 12명(남자 5명, 여자 7명)이 수강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로 교육은 잠정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후 2022년 3월 가정교회 가장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1차 가정교회 가장, 총무 통(通)성경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중심으로 20명을 선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 평신도 제3기 통통성경학교를 3월 8일 수요일 오전반, 3월 9일 목요일 저녁 직장인 반을 개설했다.

## 2) 토요일 통통성경학교

주중 낮 시간에 진행되는 통통성경학교는 직장인들에겐 참석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었다. 2023년부터 300가정 통통성경학교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이들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통통성경학교를 맛 볼 기회를 제공해야 했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12주간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통성경학교 토요일반, 교회학교 교사 반 12주 개설 광고를 낸 다음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1년 52주로 편집된 『통통성경 길라잡이』를 12주 만에, 그것도 년 내에 강의를 마쳐야 하겠기에 저를 포함한 부서 강의를 맡은 모두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주중에는 1년 과정으로, 강의 시간도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토요일반 수강생 중에는 토요일이지만 출근하시는 분도 있었고,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믿지 않아 토요일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꼭 배우고 싶어 수강 신청을 하신 분도 계셨다. 그러다 보니 강의 시간 압박이 대단했다.

함께 모여 강의 일정을 조율하게 된 것은, 12주 기간 동안 혹 불가피한 일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토요일반 수강생이 교회학교 교사반 가운데 일정이 맞는 시

간대에 참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기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개강하지만, 강의 진도는 될 수 있는 한 잘 조정하여 수강 신청한 모든 분들이 한 강의도 빠지지 않고 다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토요 통통성경학교는 세 가지 교육 목표로 진행되었다. 첫째, 『통통성경 길라잡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다. 둘째, 12주간에 성경 일독을 한다. 셋째, ‘통통성경 노래’와 ‘성경 66권 시작과 끝 이야기’를 외운다.

낮에는 직장 생활로 토요일 새벽에 강의 참석으로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강 신청을 한 33명(남자 13명, 여자 20명) 모두 수료하였다. 주중에 평택으로 출근하는 집사는 통통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 집에 와서 토요일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토요 통통성경학교 12주간 커리큘럼이다.

#### <표-8> 통통성경 길라잡이 토요 새벽 직장인반

##### \*목표\*

1. 『통통성경 길라잡이』 한 번 읽기
2. 성경일독 - 하루 30분 성경 읽기
3. 외우기 - 통성경 노래, 성경 시작과 끝 이야기

통 트랙	주	마 당
모세5경	1	1. 하나님의 마음 (창)
	2	2. 열방을 향한 꿈 (출, 레)
	3	3. 만나세대 (민, 신)



		4. 신앙계승 (수, 샷, 룻)
왕정 500년	4	5. 천년모범 (삼상, 삼하, 왕상 1~2장)
		6. 마음과 지혜 (왕상 3~11장, 잠, 아, 전, 읍, 시)
	5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왕상 12~22장 암, 호, 은, 사, 미)
		8. 절망 앞에선 희망 (왕하 21~25장 습, 합, 나, 율, 램, 애, 읍, 대상, 대하)
페르시아 7권	6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겔, 단)
		10. 재건 공동체 (스, 학, 습, 에, 느, 말)
중간사 400년	7	11.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신구약 중간사)
4복음서	8	12. 기쁨을 위한 탄생 (마)
		13. 한 영혼 사랑 (막)
	9	14. 용서를 향한 열정 (눅)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요)
사도행전 30년	10	16. 열리는 제자 시대 (행 1~12장)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행 13~19장, 살전, 살후, 갈, 고전, 고후)
	11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행 20~28장, 롬, 엡, 빌, 골, 몬, 딤후, 딤후)
공동서신 9권	12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 약, 벧전, 벧후, 유)
		20. 미리 건네 받은 승리의 노래 (요일, 요이, 요삼, 계)

### 3) 교회학교 교사 통통성경학교

2023년은 목회 실천 사항 첫 번째가 300 가정 통통성경학교가 각 가정에 세워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일 오후와 수요일 예배를 『통통성경 길라잡이』로 매주 한 과씩 공부하기로 했다. 『통통성경 길라잡이』 1과에 5개 내지 6개 소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일 오후에 50%, 수요일 예배에 나머지 50%를 진행하여, 주일 오후에 배운 내용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에서 통통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 배운 나머지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통통성경학교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회학교 예배도 장년부 커리큘럼에 맞추도록 했다. 그래서 매주 같은 내용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함으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통통성경학교가 낫설지 않게 스며들게 했다. 그렇게 일년 교회학교 커리큘럼을 짜 놓고 보니,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 직장이나, 다른 사정으로 통통성경을 접하지 못한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들이 매월 교사 교육과 매주 교사 경건회를 통해 『통통성경 길라잡이』를 접하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빠른 시간에 맞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토요일 개설과 함께 교회학교 사정에 맞추어,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교회학교 교사반 통통성경학교 12주를 시작하였다

유치부와 사랑부는 이명숙 사모가, 어린이부는 안영미 전도사가, 학생부는 김영곤 목사가 각각 맡았다.

유치부, 사랑부 수료자 - 16명

어린이부 수료자 - 16명(남자 - 4명, 여자 - 12명)

학생부 수료자 - 10명(남자 - 5명, 여자 - 5명)

## 5. 통(通)성경학교를 통한 회중의 반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삼상 2:12). 개역 성경은 '행실이 나빠'로 번역되었지만, 공동 번역 성경은 '망나니'로, 현대인 성경은 '불량배'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벨리알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식이라 했다. 엘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가 제사장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엘리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속한 마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신앙은 삶이다. 예전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일 년 된 송아지나 천 천의 수양과 만 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 6:6-8)이라 했다.

2018년부터 향존직, 피택자 교육, 가정 교회 가장, 21세기 리더학교 수료자, 토요일, 교사반 수강생들을 184명을 대상으로 통통성경학교가 본인들 신앙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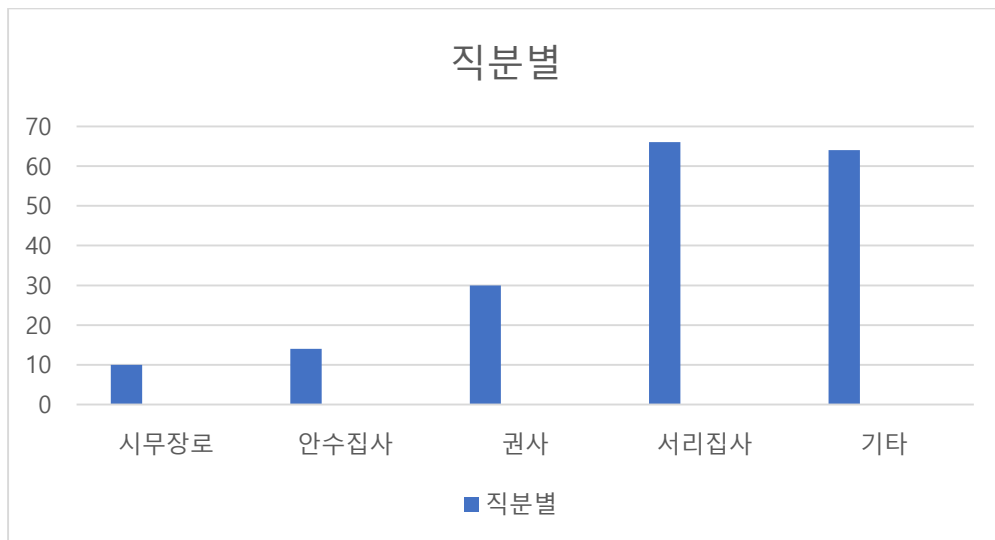
184명 중 직분자는 124명으로 시무장로 10명 전원이 통통성경학교를 수료했다. 이 중 3명은 그 다음 해 은퇴하여 원로장로로, 한 사람은 직장으로 인해 대전으로 이명해 갔다.

서산교회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무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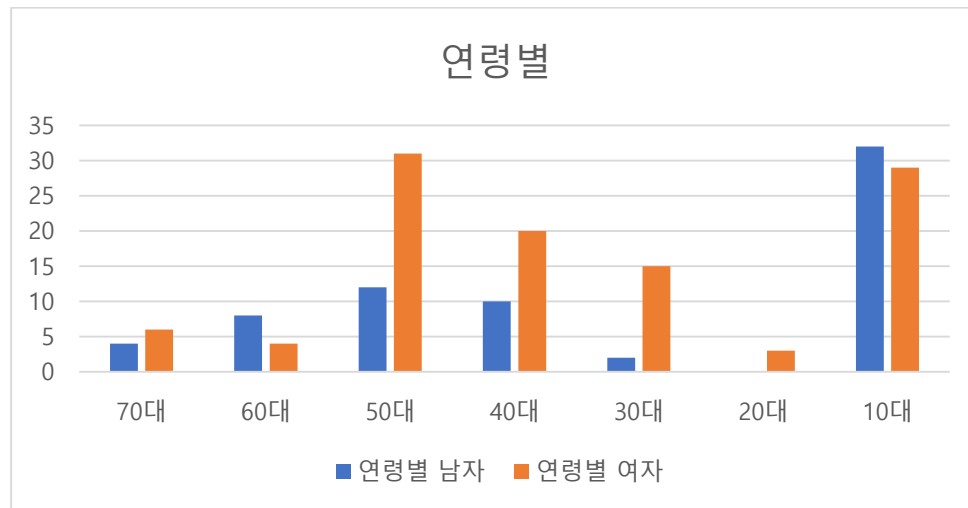
전원이 주일 오후 예배 후, 이어진 교육에 2시간 동안 전원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전원 수료한 것은 그만큼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 잇기를 해야 한다는 각오가 대단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참석 비율로 보면 시무장로와 권사가 100% 전원 참석했다. 아마도 이런 교회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 권사님들 중에는 은퇴 권사님 6분이 참석하셨는데, 배움의 열의는 젊은이들 못지 않으셨다. 젊은 권사들과 똑 같이 강의 시간 내내 집중하셨고, 결석도 하지 않으셨다. 이분들의 열의가 강의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였고, 몸은 힘들었지만 강의실에서 함께한다는 것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표-9> 서산교회 통통성경학교 직분별 수강 현황



&lt;표-10&gt; 서산교회 통통성경학교 연령별 수강 현황



통통성경학교 연령별 참여율은 교회 성도 분포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체 교인 구성비에 40대와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인데, 4-50대의 통통성경학교 참여율도 전체 참여자의 60%에 이른다. 여기에 30대까지 합하면 장년 수강생의 2/3에 해당한다. 10대 참여자는 21세기 리더학교 학생들이다.

30대에서 50대까지 여성도의 참여에 비해 남자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 동안 통통성경학교가 주중에 개설되어 주로 여성도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다. 직분자 123명(69가정)이 통통성경학교를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남자 성도의 참석율이, 그 중에서도 서리집사 4-50대 남자 성도들의 참여도가 낮음이 300가정 통통성경학교를 실시함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1) 통통성경학교 이전과 이후의 서산교회 성도들 반응

2018년 통통성경학교가 시작된 이래 5년간 전체 교인 약 1/3 정도가 통통성경학교를 경험했다. 통통성경학교를 시작한 목적이 일 년 일독 성경 통독과 성도들 가정에 통통성경학교를 시작하여 믿음의 대대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랬기에 담임 목사가 예배와 신앙 생활에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통통성경학교를 직접 경험한 자들이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아는 것은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대를 이어가는 목회 현장에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되어 참여자들로부터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21세기 리더학교 학생들은 제외하고, 장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장년 수료자 123명 중 52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남성이 14명, 여성이 3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성경통독과 성경에 대한 이해도. 두번째 질문은 통통성경학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와, 설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통통성경 가정 학교에 관한 것이었다. 통통성경학교 이전 서산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 성경통독과 예배 참여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 참여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성경통독과 관련한 질문에 통통성경학교 이전, 성경 일년 일독을 하는 사람은 30% 정도였고, 나머지 2/3에는 하루 5장 내외, 20분 정도 성경통독을 한다고 답하였다. 통통성경학교를 수강한 후, 일년 일독하던 사람이 2독, 혹은 3독을 결심하여 하고 있으며, 하루 5장 이내로 읽던 사람도 일독을 계획하고, 이전보다 배나 더 성경 일독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수년 전, 성경 천 독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달성하는데 배나 더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통통성경학교가 성경 일독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 놓게 하며, 성경과 훨씬 친숙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성경 일독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한 것은 통통성경학교를 수강할 때 수강생 대부분이 6-70% 정도를 이해하였다고 답했다. 통통성경학교를 통하여 성경 전체 흐름이 파악되면서 성경 속 이야기 흐름에 그들이 합류할 수 있게 되어 성경이 재미있게 되었다. 그러니 통통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통통성경 길라잡이』가 말 그대로 성경통독의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줌으로 성경 일독에 대한 부담을 확 내려놓게 되었다.

통통성경학교가 예배와 설교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설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성경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말씀을 접하려고 하는 생각의 기준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떠올리게 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그때의 상황을 따라가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예배와 설교의 완성도가 높아져 이전보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더 진지해 졌음을 예배 인도자인 저자도 강단에서 느낄 수 있었다.

순종은 실력이라 했다. 저자가 섬기는 교회는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중형 교회다. 하지만 본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다. 교회 청소는 가정교회별로 순번을 정해서 한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다 보니 대중교통이 원활치 않아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 차량을 운행한다. 대형 버스와 12인승 승합차 5대가 예배 시간마다 운행되는데, 이 역시 관리 집사 없이 모두 봉사로 이어진다. 봉사에 사례가 개입되다 보니 늘 불협화음이 따랐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 항존직으로 봉사를 전담하게 했었다. 항존직이니 싫어도 할 수 없이 하는 분위기였었다. 항존직도 인간이다 보니 마음먹기에 따라 기분이 좌우될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불평하기도, 고마운 마음

이 들기도 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마음 표현도 직접적인 마음 표현도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나아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과 눈물, 지혜와 노래, 용기와 하나 됨, 온유와 겸손, 기다림 등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담겨 있다.<sup>125</sup> 그간 우리는 우리 마음만 중요하게 생각하였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다. 그랬던 우리들의 마음에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다 보니 교회 청소가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내 손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시간이고, 추운 겨울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 차량 봉사하는 것이 당신의 아들을 죄인인 나를 위해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새벽 기도회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다. 만나세대가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을 받고, 가나안 정복 지도자로 임명 받아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며 전쟁 선발대를 자처했던 요단 동편의 두 지파처럼, 담임목사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어 제가 훨씬 편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 2) 통통성경학교 이후의 서산교회 가정 예배 참여도

통통성경학교가 가정 예배를 통한 믿음의 대대 잇기에 미친 효과는 어떠했을까? 서산교회가 지난 5년 동안 피택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향존직, 가정교회 가장,

<sup>125</sup>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 143.



총무 교육과 새벽 기도에까지 통통성경학교에 전념한 것은 서산교회 성도들 가정이 300가정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대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설문지에 참여한 가정들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10가정이었고, 지금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가정 예배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꼭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거나, 노력하겠다는 가정이 39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300 가정 통통성경학교를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낸 여호수아는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왕 되기가 훨씬 수월했다. 모세는 백성만 있었지, 군사들을 먹일 군량미도, 그리고 성을 갖춘 영토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에서 전승을 거둔 군대와 그들을 먹일 양식도 충분했다.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도 왕으로서 호사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복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다.

제사장 나라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126</sup>

첫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서 그 기반 위에 제사장 개념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다. 다섯 가지 제사<sup>127</sup>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sup>126</sup> Ibid., 54.

<sup>127</sup> 1)번제 -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 양이나 소 등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 2)소제 -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3)화목제 - 감사한 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제사. 4)속죄제 - 613 가지 율법으로 정하신 법을 어겼을 때

있다. 셋째,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다. 추수 때 밭모퉁이 일부를 남겨둠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 볼 수 있다. 넷째,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제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다. 다섯째, 장자와 성전이 이끄는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열세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가 열두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나라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 가나안 토착 세력들과 생명 바쳐 정복 전쟁을 치른 것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그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대를 이어 행복하기 위해서였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어서' '배우자와 신앙 나눔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좋아졌다'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유익이라서' '가족 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자녀들이 좋아서' 라고 답해 주었다.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내 가정에 통통 성경 학교가 세워질 때 그 유익에 충분히 공감하였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300 가정 통통성경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5)속건제 - 알고 혹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 이웃에게 보상하고, 하나님께도 죄를 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 VII. 결론

### 1. 요약과 평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던 교회 학교에 코로나 3년은 직격탄과도 같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으로 내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일주일 한 번 한 시간 예배는 부모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이었고, 부모는 그것으로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에 면죄부를 받는 심정이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며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代 잇기' 의 한 대안으로 300가정에 통통성경학교를 제안했다.

2장에서는 통통성경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술하였다. 통통성경을 통한 성경통독과 통통성경학교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통한 신앙 훈련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고려할 때 통통성경학교는 가정 예배를 세우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 불려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세대차를 뛰어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래 모습을 회복함에 통통성경학교는 최선의 대안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코로나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였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내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물하

는 것이다. 5살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될 때, 그의 삶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3장에서 성경은 신앙의 대代 잇기의 중요성을 매 세대마다 강조한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진 신앙의 대代 잇기가 출애굽 세대로 히브리 민족으로 세워졌고,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율법을 교육받은 만나세대가 여호수아를 도와 하나님의 꿈을 가나안에서 성취한다. 사무엘이 미스바세대로 5백년 다윗 왕조를 이루었고, 예레미야의 4가지 70년 -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 으로 설득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귀환 세대는 월등한 실력으로 세계 경영에 동반자로 레반트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감당한다.

산헤드린 공회와 동족의 협박과 핍박에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 예수 증인으로 확신을 가진 복음 1세대는 도리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시기 대상이 되었다. 사도들에게 우호적이던 로마 제국은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였다. 복음 1세대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믿음의 대代를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위대한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Jason Helopoulos)<sup>128</sup>

4장에서 믿음의 대代 잇기에 가정 예배만큼 강력한 그 무엇이 없음은 성경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통통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가정 예배 예시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가 조병호의 10분에 성경 원 스토리다. 가족이 매일 한 번 10분 성경 원 스토리를 함께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 보며 암송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sup>128</sup>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9.

5장 통통성경과 서산교회 300 가정 학교 양육 체계의 실제에서는 그간 교회에서 실행된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1세기 리더 스쿨에서 성경 일년 일독과 『통통성경 길라잡이』를 교육하였고, 주일학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주일 오후에 바이블 클래스를 1년 2학기제로 운영한다. 항존직 피택 교육과 재교육, 가정 교회 리더 교육, 평신도, 주일학교 교사 교육에 통통성경학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 2. 결론과 제언

한국 교회의 위기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 교회 교세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기독교공보가 다음 세대로 신앙의 대 잇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연중 기획으로 <신앙의 대잇기 지금부터 시작이다><sup>129</sup>를 보도했다. '한국 교회 교세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 세대가 받아들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30</sup> 라고 보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가정 내에서 신앙의 문제가 관심사의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 했다.

한국 교회가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을 자녀 세대에 게 심지 못한 것이라 했다. '한국 교회 신앙의 1세대 할 수 있는 70, 80세의 고령층의 자녀들은 40, 50대이고, 또 이들의 다음 세대가 10, 20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1세대는 체계적 신앙관을 정립하기 보다 감성적으로 신앙을 수용한 반면,

<sup>129</sup> 한국기독교공보, “신앙의 대잇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6. 2~11 월 기획연재.

<sup>130</sup> Ibid.

이후 세대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sup>131</sup> 신앙의 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수록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신앙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중기획의 박만서는 말한다. 이런 현상은 COVID 19 기간을 지내면서 더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 예배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자 다음세대로 믿음의 대대 잇기에 그 필요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 예배에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과 막힘 없는 신앙의 대화 또한 이성적 판단에서 갈등하는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부모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 이단들은 그들의 헛된 교리 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은가? 우린 진리를 갖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했는데, 모세는 만나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했다.

향존직 피택 교육에 통통성경학교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할 것을 권면하였다. 교회 향존직으로 선출되어 교회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통통성경 교육을 시킬 것을 권한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들겨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지 않겠는가! 이들은 교회 향존직이면서 한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다. 향존직 피택 교육에 통통성경 교육과 함께 배운 그대로 가정에

---

<sup>131</sup> Ibid.

서 가정 예배 드릴 것을 제안한다.

통통성경 7개 트랙에 맞추어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해 볼 것을 권한다. 필자는 통독성경과 통통성경 7개 프레임에 맞추어 창세기부터 역사순으로 큰 주제를 중심으로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여 주일 설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1-11장 원역사 부분에서 천지창조를 주제로 한 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엔 2-3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주제로 설교한다. 1-11장 원역사 부분을 6주에 설교하고, 금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에 주일 설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그런데 꼭 들어야 할 부분을 설교한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시간 성경 본문을 일년 일독 성경 읽기표에 맞추어 진행한다. 한 해는 드라마 바이블로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7-8분 정도로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다. 그 다음 해엔, 먼저 그날 읽을 분량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하고, 설명 들은 것을 기억하고 조병호가 읽어주는 일년일독 성경통독 앱을 함께 듣는다. 그리고 역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였다.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해 보니 목회자가 매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부담도 덜고, 자연스럽게 일 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도 함께 듣게 되어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장점이 있다.

통통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의 대대 잇기가 목적이었다. 통통성경학교는 그 자체로도 가정 예배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 예배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 예배학교를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가정 예배학교에 관해 여러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필자는 그 가운데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학과 신형섭 교수가 지은 『가정 예배 건축학』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실패하지 않

고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재밋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안내서다. 조병호의 10분 성경 One Story를 가정 예배 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필자의 교회에서는 매주 한 번 10분 성경 One Story를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하고, 주일 오후와 수요일 예배 시간에 나누는 『통통성경 길라잡이』 52과 내용을 매일 한 과씩 가족이 돌아가면서 나누도록 했다. 이렇게 하니 매주 한 번씩 성경 One Story로 성경의 큰 그림을 기억하고, 그 안에 매주 교회 학교와 장년부가 같은 내용으로 그 안을 채우니 아이들도 주일에 배운 내용을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나누게 되어 교회와 가정, 부모와 자녀간 신앙의 통일성을 갖게 되고 가족간 훨씬 깊이 있는 교제를 갖게 된다.

개 교회에 통통성경을 통한 다음 세대 믿음의 대대 잇기 커리큘럼을 제안해 본다.

### ○ 21세기 리더학교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기간 : 1년(3-6월 1학기, 7-8월 방학, 9-11월 2학기) 주 1회 2시간.

과목 : 통통성경 길라잡이, 성서 지리, 한국사, 세계사

필수사항 : 통통성경으로 일년 일독.

### ○ 교회학교 바이블 클래스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기간 : 1년(3-6월 1학기, 7-8월 방학, 9-11월 2학기) 주일 오후 1:30

과목 : 통통성경학교

### ○ 항존직 피택자 교육

대상 : 피택 장로, 권사, 안수집사

기간 : 피택 장로 - 6개월, 피택 권사, 안수집사 - 3개월, 주 1회 2시간



과목 : 통통성경길라잡이, 통독성경(일독 필수)

### ○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대상 : 전 교인

기간 : 1년(1월 첫 주 ~ 12월 마지막 주)

과목 : 통통성경길라잡이

수업 진행 : 52과를 52주로 진행하되, 한 주 한 과를 주일 오후, 수요 예배에 나누어 강의.

### ○ 주중 통통성경학교

대상 : 신청자에 한함

기간 : 24주 과정(3월 개강, 7, 8월 방학 후 9월 2학기 시작)

수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목요일 직장인 반: 저녁 8시~9시 30분

과목 : 통통성경 길라잡이, 성경통독 통통구구단

### ○ 가정 교회 예배

대상 :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 교회.

교제 : 성경, 통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수요 예배 후 가장, 총무 모임을 통해 그 주에 가정교회에서 나눌 교제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전한다. 가장들은 가정교회 별 정한 시간에 모여, 가정교회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가장은 통숲으로 정리된 3, 4개 포인트를 가원들과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친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꾸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강병도, 『카리스종합주석 6』, 서울: 기독지혜사, 2003.
- 김난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자녀교육』, 서울: 콤파스출판사, 2022.
- 김용섭,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서울: 21 세기 북스, 2019.
- 김일국,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 서울: CLC, 2020.
- 김치성, 『피택항존직 교육교재 충성된 일꾼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 김치성, 『장로, 전도사, 신학후보생 종합고시 문제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7.
- 박양규, 『리셋 주일학교』, 서울: 샘솟는 기쁨, 2022.
- 박영호, 조병호, 『기적을 만나는 기도』, 서울: 통독원, 2022.
- 박인경, 『부모 면허』, 서울: 규장, 2021.
- 신형섭, 『가정 예배 건축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 신형섭, 『예배개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4.
- 옥한흠, 『제자훈련 I, II, III』,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 유도순, 『이것이 구속사 설교이다』, 서울: 머릿돌, 2017.
- 이애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서울: 성경방, 2020.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1.
- 조병호, 『7가지 질문』,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1.
-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마음 훈련』,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선지자와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 즐기기』,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성경, 통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1: 모세오경1』,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성경을 통통한 기도』,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성경인물 33 스토리』,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성경통독 통통구구단』, 서울: 통독원, 2023.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통하는 사도행전 30 년』,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통이다 LET' S 통』,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통숲 페르시아 7 권 1』, 서울: 통독원, 2020.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번역 서적

- Carr, E. H.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글방, 2017.

- Curran, Dolores. 최도형 역.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15 가지』, 서울: 엘맨미디어, 2005.
- Gangel, Kenn O. 김진선 역. 『Main Idea 로 푸는 다니엘』, 서울: 디모테, 2010.
- Holmen, Mark. 김진선 역.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서울: 토기장이, 2018.
- Keller, Timothy. 최종훈 역. 『결혼을 말하다』, 서울: 두란노, 2019.
- Maxwell, John. 정성목 역.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Stevens, Paul. 김성오 역.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 Stevens, Paul. 홍병룡 역. 『평신도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 Sweet, Leonard. 김영래 역. 『미래교회 성공키워드 A to Z(1)』,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7.
- Sweet, Leonard.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Ivp, 2019.
- Tverberg, Lois. 손현선 역. 『랍비 예수와 함께 성경 읽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8.

## 간행물

- 권상길, “가정과 협력하는 교회 교육,” 「목회와 신학」 259호, 2011.
- 김성중, “다음세대 교육, 6가지 교회 교육 방향성을 제안하다,” 「목회와 신학」 403호, 2023.
- 김희자, “교회여, 부모를 교육하라,” 「목회와 신학」 322호, 2016.
- 브레드 볼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교육하기,” 「교사의 벗」 6호, 2017.

스티브 차, “MZ 세대를 품는 목회,” 「목회와 신학」 392호, 2022.

이정규, “MZ 세대와 신앙 양육,” 「목회와 신학」 392호, 2022.

임경근, “신앙 회복의 첫 단추, 가정 예배 시작하기,” 「목회와 신학」 322호, 2016.

최정민, “기독교 가정 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논단」 Vol.51 No.3, 2019.

## 신문

경기도 뉴스 포털, "나는 어디 세대? 하나의 시대에 살고 있는 3 세대 이야기,"

2021.4.22.

기독신문, “통독원, 패밀리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 시작,” 2016.3.17

울산제일일보, “분배적 정의에 대한 고찰,” 2012.3.22.

한국기독공보, “교세 감소 사회적 원인 - 교회 내적 요인 2,” 2016. 2~11월 기획연재.

한국기독공보, “교세 조금씩 올라도 청소년 뚝뚝 감소,” 2016. 2~11월 기획연재.

한국기독공보, “목회적 입장에서 정의하는 다음 세대,” 2016. 2~11월 기획연재.

한국기독공보, “신앙의 대잇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6. 2~11월 기획연재.

한국기독공보, “신학적 입장에서 정의하는 다음 세대,” 2016. 2~11월 기획연재.

한국기독신문, “신앙적인 가정,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 2021.5.18.

## 부 록

## 2011학년도 서산교회 21세기 리더 학교 독서논술 스쿨 거제도 체험학습 계획

1. 일시: 2011년 6월 5일(월)-6월 6일(화-현충일)
2. 참가 대상: 21세기 리더학교 학생 24명(초등 13명, 중등11명) 교사:10명  
(담임목사님, 이명숙 사모님, 교사 5명, 지원사역팀 3명) : 총 34명
3. 출발예정시간: 6월 5일(주일) 오후 3시 30분 우리교회 주차장  
도착예정시간: 6월 6일(월요일) 오후 11시
4. 체험학습 주제: 섬김과 나눔, 나라사랑의 길
5. 참가비: 초등학생-55,800원 / 중학생 및 어른-67,000원
6. 준비물: 체험학습자료(책자), 필기구, 모자, 세면도구
7. 경비 산출 내역

구분	1인당 경비	비고
거제유스호스텔 1박1식	20,000원 (6일 아침식사포함) C동 별관 전체 이용	거제시 남부면다대리246-8 055-632-7977
해금강 유람선 :외도상륙, 해금강 유람	어른:13,000원 초등학생,중학생:8,000원	유스호스텔에서 10분 이동 055-633-1352
외도입장료	어른 8,000원, 초등 3,000원	단체 할인가 적용
6일 점심,저녁식사	7,000원*2회=14,000원	
거제포로수용소입 장료	어른 2,000원, 초등 800원	055-639-8125
간식비	8,000원	물, 과일, 휴게소 간식
사진인화	2,000원	1인당 15~20장
버스	1,000,000원	21세기리더학교예산에서 지원

45인승(1박2일)		
애광원 방문 (부석생강한과)	50,000원	
1인당 총 경비	어른, 중학생: 67,000원	
	초등학생: 55,800원	

## 8. 일정표

날짜	시간운영	체험 내용
6월5일(주일)	15:30 ~	서산→거제 출발
	18:30 ~	휴게소에서 저녁식사
	21:00 ~	거제유스호스텔 도착, 체크인
	21:00 ~ 21:30	경건의 시간
	21:30 ~ 05:30	세면 및 취침
6월6일(월) :현충일	05:30 ~ 06:00	경건의 시간, 세면
	06:00 ~ 06:30	아침식사 및 체크아웃
	06:30 ~ 07:00	해금강 유람선 이동
	07:00 ~ 09:00	외도 상륙 및 해금강 유람
	09:00 ~ 11:30	거제포로수용소 이동 및 견학
	11:30 ~ 12:00	장승포로 이동
	12:00 ~ 12:30	점심식사
	12:30 ~ 13:40	애광원 및 애광학교 견학
	13:40 ~ 14:00	옥포 대우조선소로 이동
	14:00 ~ 16:00	옥포 대우조선소 견학
	16:00 ~	거제→서산 출발
	17:30 ~ 18:00	휴게소에서 저녁식사
18:00 ~ 21:00	서산도착(교회 주차장에서 해산)	

## 9. 역할분담

역할	담당자	비고
총괄	장상철 담임목사 이명숙 사모	경건의 시간 운영 거제도의 신앙 내력(사전학습)
총 진행, 숙소 및 애광원 견학 등록	김명희 집사	체험학습 계획서 작성(5/11) 유스호스텔 예약금 입금(5/11) 애광원 담당자 연락(5/11, 당일) 055-681-7524 인터넷 등록(견학신청)
경비 관련 업무	정소영 집사	참가비, 각종경비관련 임시출납
간식 준비	박현선 집사	생수, 과일 준비, 휴게소 간식 등
체험학습 책자 제작	이진 집사, 박종일 집사	A4 용지 스프링제본 40부
외도 및 해금강 안내	국신호 집사	홈페이지 참조(안내 멘트 준비) 체험학습 책자 참고(코스 준비)
거제포로수용소 관람안내	최국영 집사	
조선소 견학 안내 및 해금강 유람선 예약 체험전반 사진 촬영	최태근 집사	조선소 견학 허락 공문 발송 디지털 카메라 준비
애광학교 및 애광원 견학 안내	김명희 집사	홈페이지 참조(안내 멘트 준비) 체험학습 책자 참고(코스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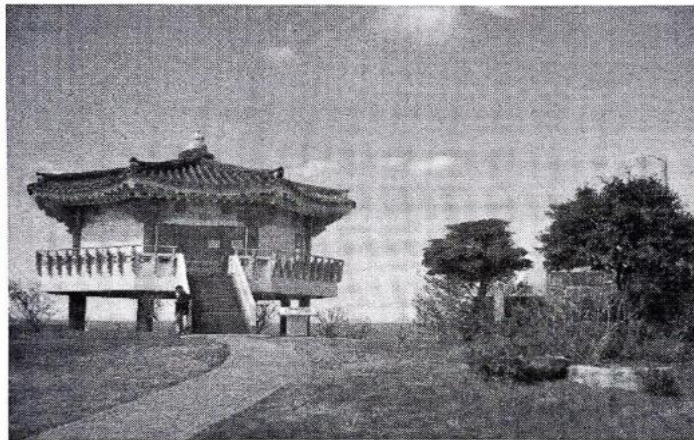
## 10. 인솔담당(인원 점검 및 진행)

- 초등 5학년(9명)-이진(남학생), 정소영 집사(여학생)
- 초등 6학년(4명)-박종일 집사
- 중등 1학년(11명)-최국영(5명), 국신호 집사(6명)



21 세기 리더 학교 대마도 비전 트립

# 2012 일본 대마도 비전트립 對馬島



2012년 1월 18일 (수) ~ 1월 20일 (금)

| 서 산 장 로 교 회 |

## 여행일정

단체명	서산장로교회 21세기 리더학교 2012 일본 대마도 비전트립
행사기간	2012년 1월 18일 (수) - 1월 20일 (금) (2박3일)
행사지역	일본 대마도

### ○여행 일정표

일자	행선지	교통	시간	일정	식사
제1일 1/18 (수)	부산 대마도	코비호 도보 전용차	06:50 08:00 10:00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2층집결 승선권 발권수속 출국수속후 부산항 출발 대마도 이즈하라항 도착 입국수속 ▷수선사(최익현선생 순국비) ▷쿠다교회 방문 ▷고려문 조선통신사비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숙소이동 체크인 석식 및 휴식 숙박: 유메 민숙	중식: 현지식 석식: 특식 바베큐
제2일 1/19 (목)	대마도	전용차	///	조식후 2일 일정 ▷즈쯔자키(대마도 최서남단의 전망대) ▷아유모도시 자연공원 ▷오후나에(쓰시마번 공용선의 격납고) ▷아리아케 등산(해발558m 왕복 약3시간반) ▷뫼다리온천욕 석식후 숙소이동 체크인 및 휴식 숙박: 유메 민숙	조식: 민숙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3일 1/20 (금)	대마도 부산	전용차 비틀호	/// 15:00 16:00 17:10	조식후 3일 일정 ▷만제키바시(대마도를 관통하는 운하와 교량) ▷와타즈미신사(신화의 해군신사) ▷에보시다케 전망대(아소만 조망) ▷한국전망대 / 조선역관사 순난지비 ▷미우다하마 해변(일본의 아름다운해변 백선) 히타카츠항 도착 승선권 발권수속 출국수속후 히타카츠항 출발 부산항 도착 입국수속후 일정종료 해산	조식: 민숙식 중식: 현지식

○위 일정은 운항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의해 약간의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 대마도 개요

### ○행정 구역

나가사키현(長岐県) 쓰시마시(對馬市) —— 6개 정(町)으로 조직

이즈하라(巖原町) 미쯔시마(美津島町) 도요타마(豊玉町)

미네(峯町) 가미아가타(上県町) 가미쓰시마(上對馬町)

### ○위치, 면적

경도: 동경 129도 위도: 북위 34도

☑ 한국까지 49.5 km 후쿠오카까지 138km

남북 약82km 동서 약18km

면적은 약708km<sup>2</sup> 로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섬

☑ 울릉도의 약10배 제주도의 약40% 크기

### ○인구, 산업 :

약34,900명 (2011년 8월말 현재 쓰시마시청 통계)

제1차산업 23.9% 제2차산업 19.7% 제3차산업 56.4%(2000년 국세조사시 통계)

### ○자연

섬의 89%가 산림지대이며 해안선의 총길이는 약915km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키 쓰시마 국정공원으로 지정



## 통성경학교 참여자 질문지

1. 통성경학교에 참여하기 전 평소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요?
2. 통성경학교에 참여하고 난 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3. 통성경학교를 수강하는 중 좋았던 점?
4. 통성경학교를 수강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나요?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퍼센트?
5. 통성경학교를 수강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다면?
6. 통성경학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7. 통성경을 수강한 후 예배와 설교에 대해 나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8.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있다면 누구와 드리나요?
9. 앞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10.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가 있다면?
11. 가정 예배를 통해 누리는 유익이 있다면?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Sangchul Chang

Place and Date of Birth: Pohang, South Korea, August 01, 1958

Parent`s Names: Imsang Chang / Musaeng Seo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Hanyoung High School</b> 832 Dongnam-ro, Gangdong-gu, Seoul	Diploma	Feb 10, 1977
Collegiate: <b>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b> 86, Daehak-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15, 1988
Graduate: <b>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6, 199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angchul Chang

Name typed

March 12, 2023

Date